

성도의 빛 11  
1973

대 관장 단

해롤드 비 리  
엔 엘돈 태너  
매리온 지 롬니

십이사도

스펜서 더블류 김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마크 이 피터슨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리그랜드 리차즈  
휴 비 브라운  
하워드 더블류 헌터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브르스 알 맥콩키

등록번호 라-932

1967년 10월 4일

발행일 1973년 11월 1일

매월 1일 발행

통권 제100호

발행인 겸 편집인: 엘 에드워드 브라운

번역: 한국 번역 출판부

전화: 73-5331

발행소: 서울 종로구 청운동 7

서울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대체구좌: 서울 1409

인쇄인: 삼화 인쇄주식회사 유 건수

교문 위원회

교내 연락 책임자, 제이 토마스 화이언스  
번역 및 배부 책임자, 존 이 카  
교회 잡지 책임자, 도일 엘 그린  
교육 자료 책임자, 다니엘 에이치 루드로우

순서

오직 한가지 길이 있을 뿐	<b>1</b>	매리온 지 롬니
민헨 '73	<b>4</b>	
민헨 '73의 회고	<b>10</b>	
자유의지의 세가지 면-권리, 책임, 결과	<b>12</b>	토마스 에스 몬슨
조용히 길을 걸어가라	<b>15</b>	밀드레드 바델
지식인이 되는 방법	<b>18</b>	브야른 크리스찬슨
창조	<b>21</b>	
주머니칼과 야구공	<b>24</b>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축구공	<b>26</b>	쉐리 존슨
빅타 엘 브라운 감독과의 인터뷰	<b>29</b>	
역대 관리 감독단	<b>31</b>	에즈라 태프트 벤슨
파숫군이여 악인을 깨우치라	<b>32</b>	본 제이 페더스톤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b>36</b>	토마스 에스 몬슨
날개에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	<b>39</b>	마크 이 피터슨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b>42</b>	
선교부장 메시지	<b>46</b>	엘 에드워드 브라운

정가 1권 100원 1년분(송료포함) 국내 800원 국외 선박 5불 항공 7불



1973년 11월호 성도의 벗 제9권 제11호

# 대관장단 메시지

대관장단 제 2 보좌

매리온 지 롬니



## 오직 한가지 길이 있을 뿐

“우 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인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 1 : 8-9)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나 유태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유태교도라고 불리우는 일부 유태교 신자와 이방인들 틈에서 살고 있던 소수의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거짓 기독교인들의 압력에 못이겨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셨다고 가르쳤지만 유태교의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의 배도 사실을 전해 들은 바울은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가 서한을 보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이며 그것만이 구원에 유일한 길임을 확신시키는데 있었습니다. 그는 거짓된 가르침에 빠져드는 그들을 구해내고자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했던 것과 같은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일찍이 모든 길은 천국으로 통한다는 사탄의 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는 말도 듣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는 내일 죽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라 우리에게 좋으리라” “또한 많은 자들이 이르기를 먹고 마시고 즐기되 하나님을 경외하지 하나님은 죄를 조금 지으면 용서하시니, 거짓말도 조금 하고 사람의 말을 트집 잡아 이익을

얻으며, 하나도 해될 일이 없으니 이웃을 빠뜨릴 함정을 파는 등 이러한 모든 일을 행하라. 우리는 내일 죽으리라. 우리에게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매로 몇 번 치실 것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을 받으리라 하리라.”(니이 28 : 7-8)

우리는 “마음에 교만이 부풀어 오른 자와...거짓 가르침을 가르친 자와 음행을 행한 자와 주의 바른 길을 외곡시킨...자들”(니이 28 : 15)의 압력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악의 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말일성도 가정에서 자란 어느 젊은이가 공부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이름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그곳에서 각기 다른 환경과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과 사귀었으며 모든 면에서 그들이 좋은 상대자가 되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따르지 않는 우리 교회의 가르침에 구태여 자기도 따를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에 어느 청년 지도자는 자기 그룹에 속한 회원이 대학 학생 활동에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그는 교회 표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사귀고 있으며, 이들 청년은 비록 교회 활동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끊임없이 그들을 위협하는 타협 세력에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 왔습니다.

이상과 같이 신앙을 잃게 하는 경우를 당해서도 우리는 언제나 그들의 압력에 대치해 나갈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에게 주신 천국에 이르는 길은 많지 않고 하나 뿐이라고 한 바울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도 그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수차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마 7:13-14)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미대륙에 나타나셔서 니파이 백성에게 똑 같은 말로 같은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니삼 14:13-14) 다시 이 말일의 경륜의 시대에 그는 비슷한 말씀으로 그 가르침을 되풀이 하셨습니다. (교성 132:21-25)

이 성구가 가르치는 교훈은 생명 나무에 관해서 리하이가 꿈의 예언적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그가 시현에서 생명 “나무쪽을 따라 뻗혀진 쇠막대 하나를 보았다” (니일 8:19)는 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쇠막대를 굳게 붙잡은 사람은 구원되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쇠막대를 붙잡고 따르지 않으려 한 사람들은 어둠의 안개 속으로 빠져 들어가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곧은 문의 열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쇠막대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복음의 가르침입니다. 구세주 자신의 가르침을 포함해서 경전이 요구하는 본래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명과 그를 믿는 신앙의 중요성과 그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하는데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를 받아 들이면 나를 알게 될 것이요, 너희의 승명을 받으리니,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리라” (교성 132:23)

주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의 계명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뜻을 알아 이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하게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이러한 요건을 이행할 수 있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1832년 9월 주님께서서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여섯 장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너희에게 계명 하나를 주어 너희 스스로 조심하게 하노니, 곧 생명의 말씀을 명심하기에 부지런하라.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 가야 할 것임이라. “주의 말씀은 진리인 연고니, 무엇이든지 진리면 곧 빛이요, 무엇이든지 빛이면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은 세상에 오는 각 사람에게 빛을 주시나니, 영은 세상을 통하여 영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사람을 깨우치느니라. “또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 모두 하나님 곧 아버지께 나아오느니라” (교리와 성약 84:43-47)

예수께서도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 14:6) 한가지 길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임 사도는 자기와 요한이 초기 기독교 교회의 사도가 절름발이를 고쳐 최초의 기적을 행한 일에 대하여 공회에 나오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러한 사실을 공언하였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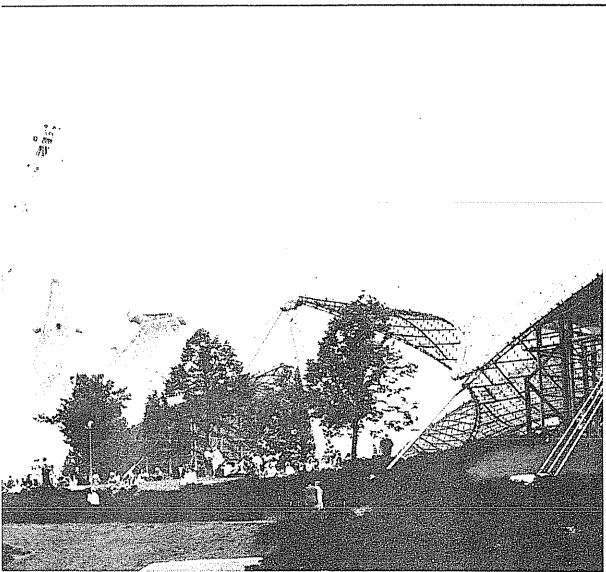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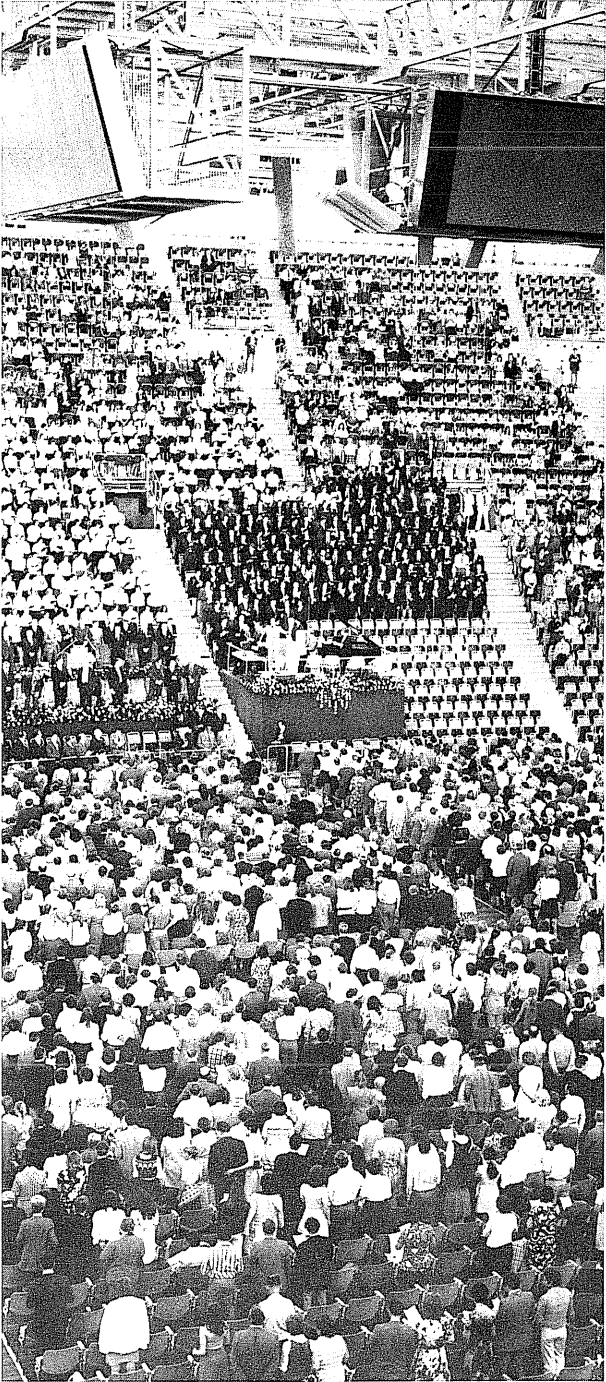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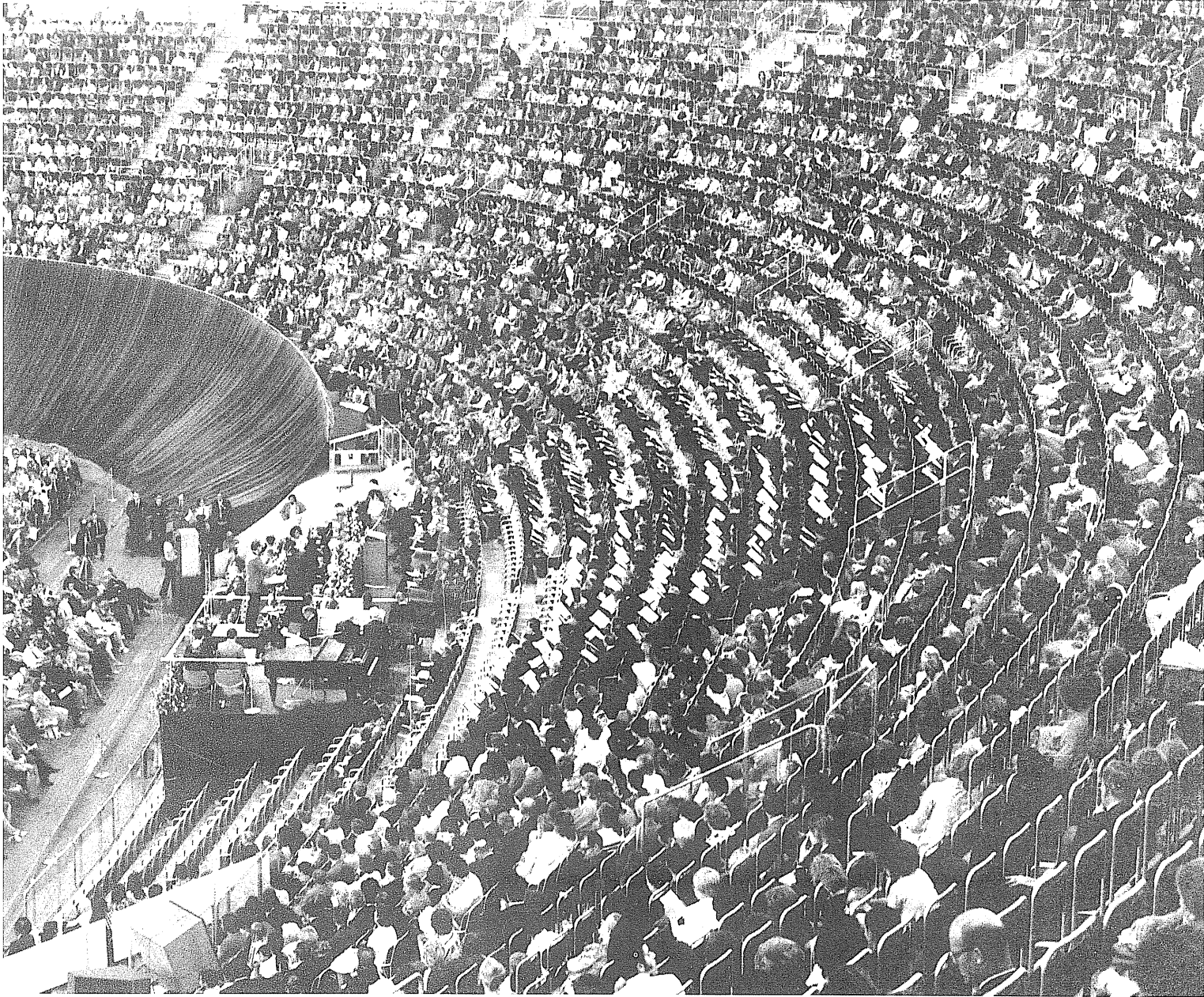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7-12) ㉔

# 민헌 '73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의  
제 3 차 지역 대회



“우리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교회 본부로 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조금도 잊지 않고 있으며 교회의 총 관리 역원은 항상 여러분의 관심사를 마음속에 지니고 있으며, 교회 본부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원들을 위해 한 것과 똑같이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리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해롤드 비리 대관장”



**1** 973년 8월 24, 25, 26일 삼일에 걸쳐 세번째로 독일의 뮌헨에 있는 올림픽 파크에서 교회의 지역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관장단이 총관리 역원 대표단을 대동했으며, 태버나클 합창단도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녹음하고 주일 모임에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지역 지도자들도 기도와 말씀 순서를 맡아 참여하였다.

구라파 대륙에서는 최초로 거행된 대회였고 6개국어를 사용하는 구라파 8개국 성도들 즉 오지리,

벨기에, 불란서, 독일, 화란, 이태리, 스페인, 스위스의 성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더욱 독특한 대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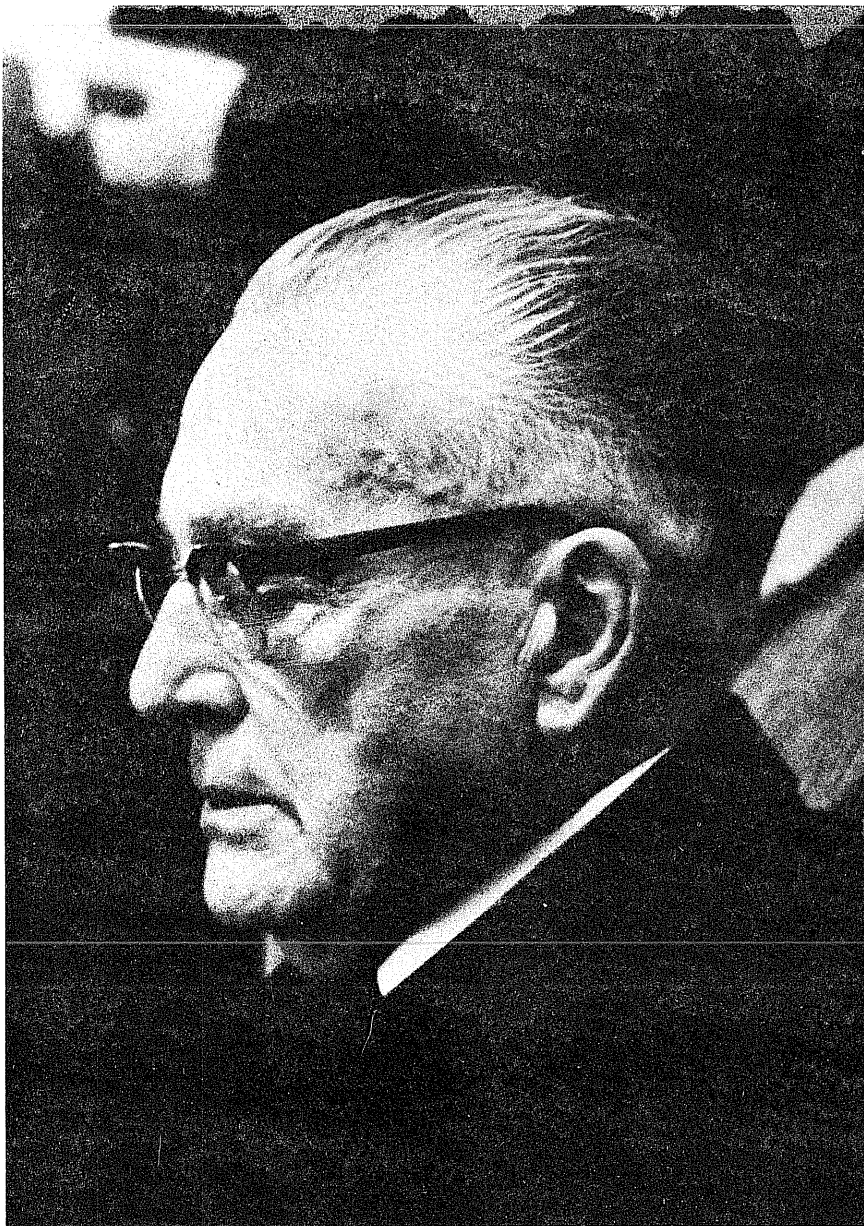
\* \* \*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종사오니”(마 17:4) 변형의 산에서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한 이 말은 뮌헨 지역 대회에 참석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했을 말이다. 어느 회원은 일요일 오후 마지막 모임이 있기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대하신 주님의 영이 충만함을 느

꼈습니다.” 정말 그들은 그러한 영을 느꼈다. 구라파의 성도들은 오랫동안 뮌헨 대회를 잊지 못할 것이다.

금요일 오후에는 청소년을 위한 활동이 시작되어 배구와 탁구 시합을 끝으로 경기를 마쳤다. 금요일 저녁에는 각 지역에서 온 청소년들이 로드쇼, 민속 무용, 스포츠 홀에 운집한 열렬한 관중을 위해 민속 음악제를 가졌다.

토요일 아침에는 리 대관장님의 사회로 정규 모임이 진행되었다. 토요일 오후에는 자매들과 신



“우리는 회원이 어느 곳에 있든지 침례 성약에 진실하며, 다른 사람들이 회원의 모범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도록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참된 증인으로 나서기를 촉구해 왔으니, 이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권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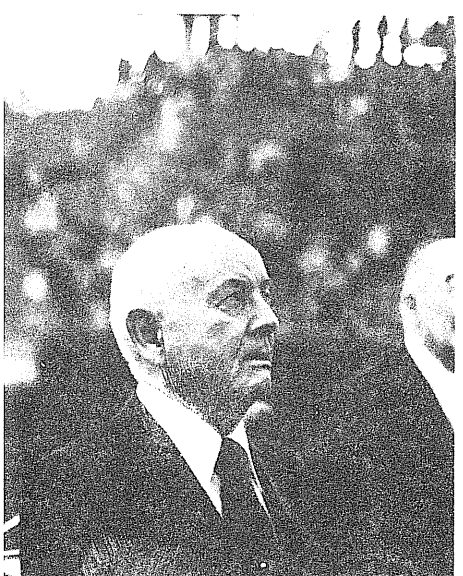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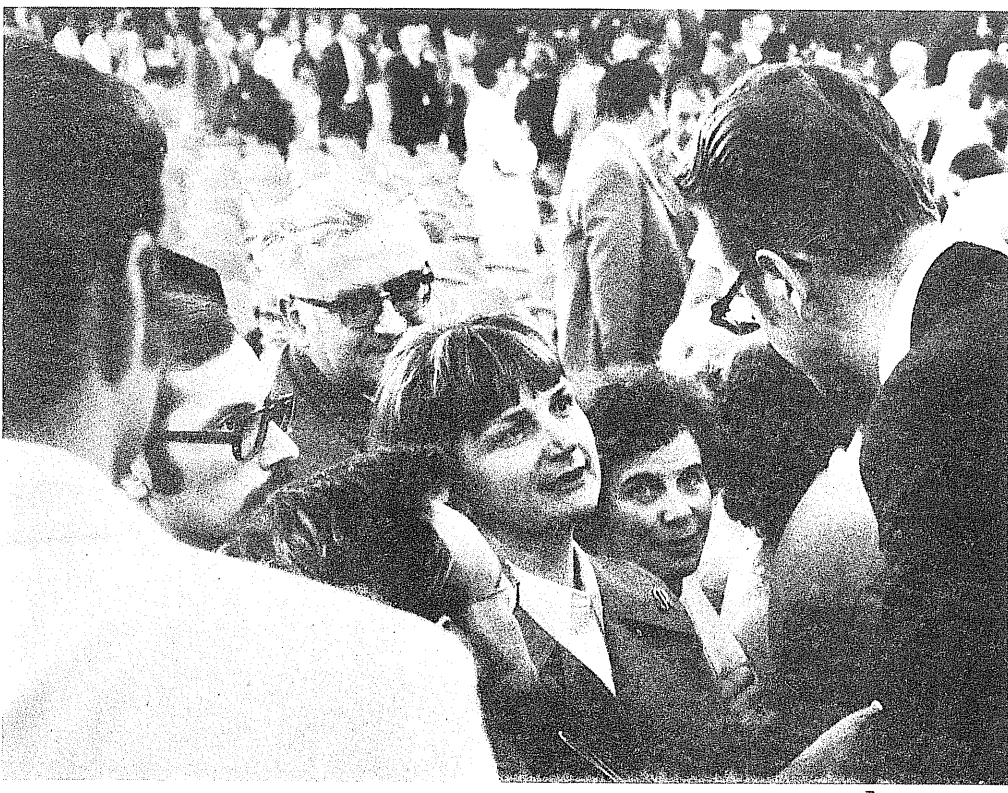
해롤드 비 리 대관장





권 소유자들을 위한 모임이 개최되었는데 총관리 직원과 각 지역 지도자들이 각 그룹에 참석하여 그들의 의무를 가르치고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핀헨 대회에서 가장 기억할만한 사항으로 음악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대회를 위해서 큰 합창단 두개가 조직되었다. 북부 합창단과 남부 합창단은 그 이름이 말하듯이 대회 지역의 북부와 남부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직원들로 합창단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지역 단위로 예비 연습이 실시되었으며, 스테이크나 지방부 단위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모여서 연습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했다.



지역 신권 지도자와 상의하는 회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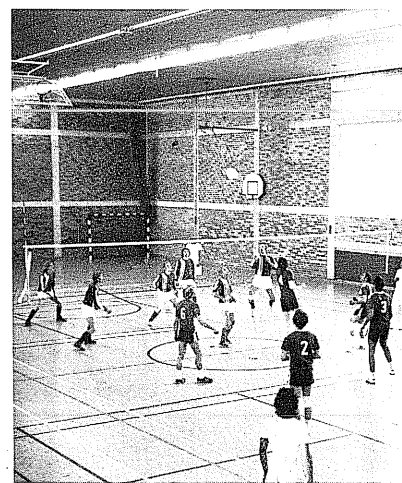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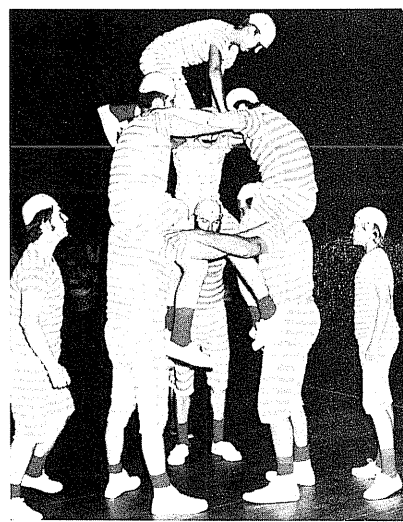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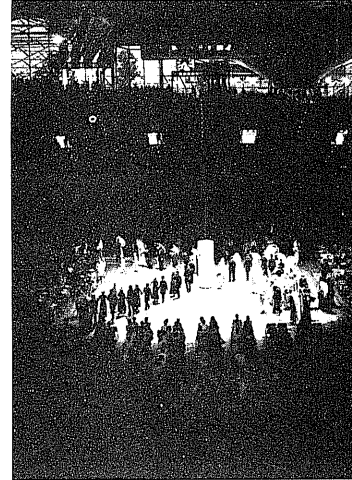
일례로, 비엔나 (오지리) 제1 지부의 회원은 예배당 건립을 위해 건축 일에 참여해야 했다. 이 지부가 상량식을 올리는 날이 합창 연습일과 겹치게 되었다. 이 지부에 속해 있는 합창단원은 그것이 자기들의 의무라고 생각해서 합창 연습에 참석하기로 했다. 어느 합창단원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노래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보다 굳게 단합되었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노래로 불렀을 때 우리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우리의 간증도 점차 커졌습니다. 뭇대회를 준비한 것은 정말 훌륭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합창 단원, 지휘자, 반주자들의 노고는 눈에 띄일 정도였다. 참석한 사람들은 가장 인상적인 것중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 대회에서 처럼 회원들이 큰 희생을 치루었으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놀라운 신앙심을 발휘해야 했다. 대회 직전에 병이 났으나 신권의 축복을 받은 후 참석한 사람도 있었다. 어느 형제는 중환이어서 곧 사망하리라는 의사의 통고를 받았다. 그는 장로로부터 축복을 받고 대회에 참석할 수 있었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 환자가 회복하게 된 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눈이 멀고 건강이 나쁜 어느 형제는 자기 의사로부터 시간을 얻어 자기 스테이크 내의 의사 세 명과 함께 대회에 올 수 있었다.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운동, 로드쇼, 기타 오락 활동도 대회활동의 일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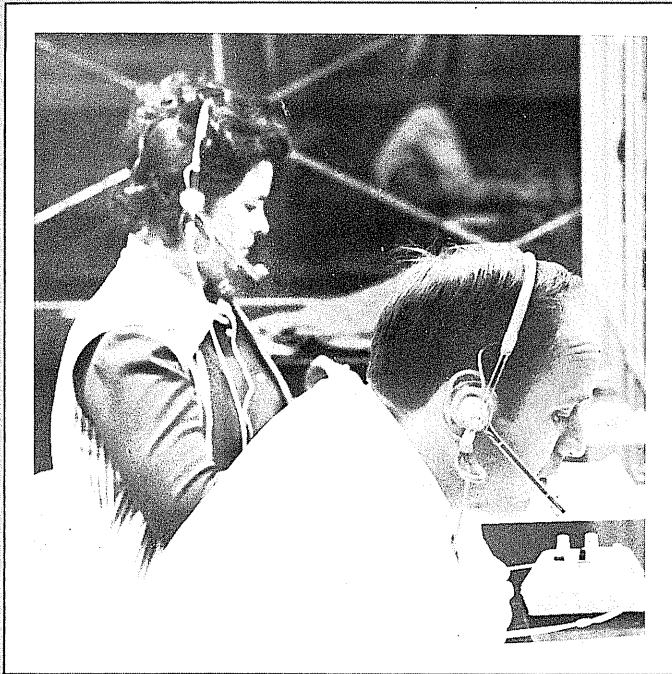
사람이 재정적으로 희생을 치루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이유로 참석할 수 없었던 사람은 여비가 없는 사람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70이 된 한 할머니는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사를 돌보는 일을 기꺼이 해냈다. 기금을 모을 계획을 했다는 보고는 없다. 이것은 모두 조용히 과외의 시간에 일을 더 하거나 조용히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는 방법으로 행해졌다.

각국에서 온 이들에게 본 대회는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까? 주일날 마지막 집회가 끝났을 때 남부 합동 합창단은 다시 한번 우렁차게 “우리 다시 만나 볼 동안”을 불러 주었다.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으며 총관리 역원의 눈에서도 눈물이 내렸다. 과거는 한 때적 대지간이던 각국 사람이 복음의 형제로 한데 뭉쳐서 주님의 따뜻한 영을 함께 느낄 수가 있었다.

어느 지역 신권 지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 곳에 올 때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개는 이삼십명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 작은 지부에서 왔습니다. 그렇지만 15,000명의 성실한 성도들이 모인 대회에 참석하고 예언자와 총관리 역원의 말씀을 듣고 직접 보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한 선교부장은 이번 대회가 교회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점에서 뿐만 아니라 각 회원의 마음에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심어 준 점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대회였다. ㉔





“번역사들”



## 민헌 '73의 회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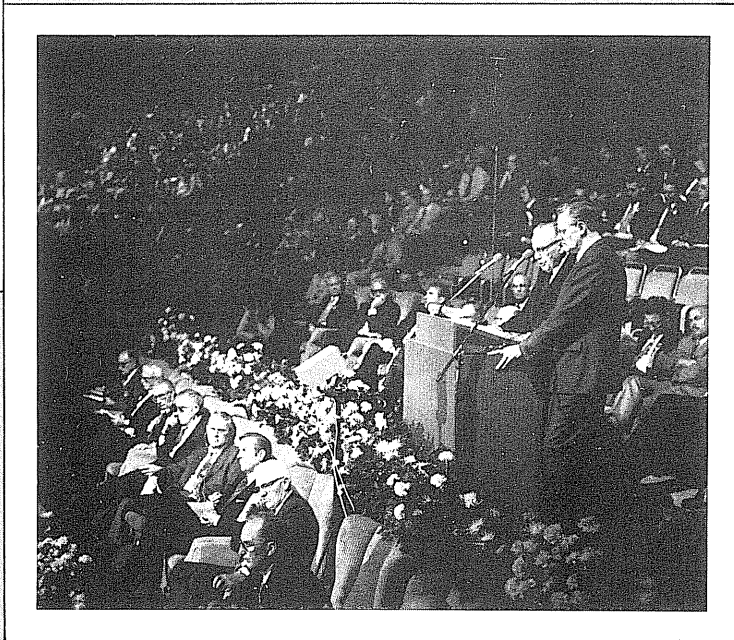
**민**헌 대회와 같은 큰 대회를 개최하는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즉 수용 능력, 좌석 배치, 안전, 통신 시설 등이 그것이다. 번역상의 문제도 큰 과제로 대두되었다. 6개국어를 사용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성도들을 위해서 각자가 자기 나라의 말로 대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

겠는가?

번역상의 문제는 독특한 방법으로 처리되었다. 독일이주최국이므로 독어가 공식 용어로 확정 장치를 통해 퍼져나갔다(회중의약 삼분지 이가 독어를 해독함) 연사가 독어 이외의 언어로 연설을 할 때면 독어 번역사가 연사 옆에서 통역을 하게 되는데, 연사가 문장 몇 개를 말하고 나면 즉시 번역이 되

어 나오는 것이다. 이개국의 말이 모두 확정 장치를 통해 울려 퍼졌다.

기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연단 아래에 마련된 방에 있는 번역사들이 즉석 통역을 해냈다. 그들은 이어폰을 통해 연설을 듣고 번역한 내용을 무선으로 통해 대회장으로 보냈다. 독어를 사용하지 않는 회원에게는 이어폰과



소형 무선 레시바가 할당되었다. 레시바는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다이알을 맞출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언어로 대화의 진행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또 다른 한가지 예를 통해서 어려운 문제가 뜻밖의 방법으로 해결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태버나클 합창단은 스포츠 홀에서 “음악

성도의빛 1973년 11월호

과 진리의 말씀”주례 방송을 위한 녹음에 들어 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홀에는 반주할 만한 울건이 없었다. 사실 뮌헨에는 이대 합창단에 알맞고 이 홀에 옮겨 놓을 수 있는 울건이 있는 곳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 이때 울건을 찾는 지명을 받은 어느 형제가 뮌헨 근처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울건 발명가에 관한 이

야기를 들었다. 이 사람은 파이프 울건과 거의 흡사한 음질을 지닌 전자 울건을 만들었다. 이 사람과 접촉했을 때 그는 기꺼이 교회가 그 울건을 사용하도록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세를 받지 않고 시설까지도 맡아 주었다. ㉔

# 자유意志의 세 가지면 .....권리, 책임, 결과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자유意志의 세 부면인 선택의 권리, 선택의 책임, 선택의 결과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현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유意志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에덴 동산의 나무를 정해 주시고 한 나무를 지적하시며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아담의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네게 주어진 것이니 먹든지 말든지 네게 맡기노라...” (모세서 3:17)

우리에게는 선택의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윌리엄 지 그레그는 다음과 같은 시로 이것을 아름답게 설명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유意志로  
무슨 일 하나 자유로  
영원하신 진리있어  
인간을 강압하잖네

“지혜와 사랑 빛으로  
바르게 훈계하시고  
친절과 선하심으로  
주 결코 억압하잖네”  
(찬송가 126장)

우리는 또한 선택할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설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무시해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이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무시해서는 아름답게 색칠한 도로 표시판으로 자기에게 오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빛나고 찬란합니다.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 일은 죽을테니까” “이렇게 하는 게 무엇이 어때. 요즈음은 다 그러는데”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

반면에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길 표시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갈 6:7)는 것입니다.

“무릇 창세 이전부터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하늘의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130:20-21)

그러므로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택해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위험을 경고해 주는 보호 장치를 발명했습니다. 내가 미국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을 때에는 수중 음파 탐지기가 초기의 단계에 있었습니다. 군에서 복무하신 분은 이 수중 음파 탐지기가 바다에서 달려오는 어뢰나 배 기타 장애물을 경고해 주는 장치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음파를 듣고 알게 됩니다. 조정사는 반복되는 뽁뽁 소리를 듣고 알아냅니다. 정상적인 형태로 소리가 반복되지 않으면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배의 진로를 바꿉니다.

인간도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음파 탐지기를 고안해 냈다면 주님께서도 인간의 마음 속에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잡아주는 경고 장치를 당연히 설치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인도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간단한 것입니다. 조용하고 작은 음성인 성령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4:26)

선택의 권리와 선택의 책임에 덧붙여 우리는 선택의 결과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열 여덟살이 가까와오던 어느 날의 일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모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계속 중이었으며 모든 젊은이들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많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육군에 가느냐 해군에 가느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했습니다. 나는 해군을 택했습니다.

44명의 젊은이가 징병 사무실에 집결했습니다. 나는 선임 하사 몇 명이 우리에게 와서 둘 중의 하나를 택하도록 한 것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해군 정규 과정을 택해서 4년간을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좋은 교육 과정도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해군이므로 모든 기회가 부여됩니다. 이 과정을 원치 않는 사람은 예비병으로 편입됩니다. 해군은 현 단계에서 예비병에는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육 기회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해상 근무를 하게 됩니다. 여

러분의 장래는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현장에서 결정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었습니다.

“난 해군에 대해선 전혀 모르거든” 하시며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거기에 왔던 아버지라면 같은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44명 가운데서 42명이 4년 과정인 정규 해군에 지원했습니다. 43번째 되는 사람은 신체 조건으로 정규 해군에는 갈 수 없어 예비병을 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한 사람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는 진지하게 하나님을 향해 대답해 주실 것을 간구하였습니다. 주님께서서는 대답해 주셨습니다. 내가 옆에서 음성을 듣는 듯한 목소리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마음 속에 들려 왔습니다. “선임 하사들에게 그들이 무엇을 택했는가를 묻도록 하라” 나는 선임 하사들에게 일일이 물어 보았습니다. “선임 하사님은 정규 과정을 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예비병을 택하셨습니까?”

그들은 하나 같이 예비병을 택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향해 “선임 하사님들께서 지니신 지혜와 경험을 고려해서 저도 예비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비병을 택했는데 이것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에 6개월을 더 근무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는 일년 이내에 영예롭게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학업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의 여러 직책에서 일할 수 있었던 특권을 받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결정으로 보였을지도 모를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와 지도를 간구한 그 순간을 갖지 않았다면 내 생애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영의 인도를 받은 선교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는 풋내기 선교사로 선임 동반자와 함께 캐나다의 온타리오주 오샤와시에서 복음을 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플라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플라드씨가 나와서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갔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자료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후 악령이 그의 머리에 내려온 것 같이 보였으며, 그는 선교사들에게 화를 내면서 당장 나가 다시는 오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가 는 선교사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앞에서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말을 하지 말라.” 문이 팡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낙담한 두 선교사는 힘 없이 걸어 갔습니다.

이때 젊은 선교사는 선임 동반자를 보고 이렇게 말했

습니다. “우리는 플라드씨의 질문에 대답을 못했어.”

선임 동반자는 되돌아 가도 소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선교사는 “내가 가서 말을 하고 와야지. 그렇지 않고는 불안해서 못견디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플라드씨댁을 방문했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지 않소.”


선임 동반자가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젊은 장로가 다음 결정을 내리는데는 더욱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나는 플라드씨가 그의 이러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내 눈을 유심히 쳐다 보았습니다. 그는 잠시 주저하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플라드씨 우리가 댁을 떠날 때 우리가 정말로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플라드씨 저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임을 알고 있다는 사실과 이 사업이 참되다는 것을 형제님이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선교사는 떠났습니다. 플라드씨는 나중에 그날 하루 종일 “나는 요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예언자였음을 안다.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안다. 알고 있다.”라는 말이 그의 귀로 들려왔다고 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선교사를 전화로 부르고 다시 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아내에게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의 자녀에게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모든 가족이 회원이 되었습니다. 몇년전 어느 지방 대회에서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이 젊은 선교사를 다시 오게 해서 그의 간증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표하는 말을 들으셨다면 여러분께서도 선택을 해야 할 때 옳은 것을 택하겠다는 마음이 간절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고만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우리가 그에게 가고자 할 때 현재의 위치에서 우리를 인도하십시오. 그는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며 자신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합니다.

나는 우리가 의로운 일을 하고자 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는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행복을 안겨다 준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으니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 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교리와 성약 76: 5) 





# 조용히 길을 걸어라

밀드레드 바멜

리  
산  
림

산 링은 작은 보자기에 집을 꾸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도 아버지보다 크니 나가야지. 꼭 성공해서 돌아 올테야.”

그는 어머니가 구운 과자를 종이에 싸다. 그는 조십스레 백을 등에 메어 보았다. 그런 다음 아버지에게 머리를 숙여 절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동생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내가 돌아올 때는 무척 클거야.” 하고 말했다.

산링이 사는 작은 마을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면 큰 바다에 이르게 된다. 그곳을 향해 걸어 가면서 그는 바닷가에서 살고 거기서 일하며 바다의 친구가 된다는 것을 흥미롭게 상상해 보았다. 그는 마을을 뒤돌아 보지 않았다. “나도 어린시절은 지났지. 항상 앞을 보며 살아야 돼.”

산링은 성실함이 입증될 때까지 무보수로 어느 어부 밑에서 일하게 되었다. 산링은 자신의 노력에 바다가 보답해 주리라고 느끼면서 “오늘도 그후에도 고기를 많이 잡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좋다. 난 하루 밤과 낮을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가야 하니 넌 남아서 고기를 잡도록 해라. 배 안에 가면 그물이 있단다.” 하며 어부가 말했다.

산링은 출발하려는 어부에게 미소를 지어 보이고 절을 하였다.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날밤 잠자리에 들었을 때 강풍이 밀어 닥쳐 느슨하게 매 놓은 닻줄이 풀어졌다.

다음 날은 바다에 돌을 던지면서 할 일 없이 보냈다. “바람이 분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하며 바다를 향해 소리쳤다.

어부의 화난 얼굴에 한숨을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다. “바다의 친구라고 할만큼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두고 보세요.”

“바다는 친구가 필요 없지만 난 내 배가 필요하단 말이야.” 하며 어부는 코웃음을 쳤다.

산링은 멀리서 듣고는 다시 절을 했다.

“다른 데로 가서 나의 진가를 증거해 보아야겠어.” 이렇게 말하고는 가방을 챙겨 들고 앞으로 뻗어 있는 길을 따라 정처없이 걷기 시작했다. 곧 그는 아버지의 작은 농장을 생각나게 하는 길목에 들어섰다.

농부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년 동안에 나는 아버지보다 더 컸어요. 항상 아버지 곁에서 일했지요.”

“나와 일을 해 볼까? 얼마나 잘했는지를 곧 알 수

바멜 자매는 시더 래피드 스테이크, 시더 래피드 워드(아이오와)에 소속되어 있는 일꾼자녀의 어머니이며 가정 주부이다.

“그것은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상의 노력을 요한다. 날 보거라. 잔을 만드는 비결을 알고 싶거든 나와 약속을 하자.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있지.” 하며 농부가 말했다.

산림이 가방을 나무 밑에다 놓자 농부가 호미를 건네 주었다. 일을 하면서 산림은 잘 알고 있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다. “햇빛이 비칠 때 잡초를 모두 뽑아내야지.”

농부와 산림은 잠시 함께 일을 했으며, 농부는 자기의 어린 아들도 함께 일하도록 부르러 갔다. 그가 돌아와 보니 산림이 나무 아래서 쉬고 있었다. “왜 일을 중단했지?” 하며 꾸짖고 “햇빛이 있지만 잡초도 많지 않아” 하며 말했다.

“쉬고 있어요.” 하며 산림이 대답했다.

농부도 호미를 들고 땅을 파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아버지를 닮아 게으르구나. 아직 해가 있지만 난 그걸 알 수 있단 말야.”

산림은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아버지는 제가 게으르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배우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농부도 누엿 누엿 저물어가는 해를 바라다 보았다. “난 배우는 사람에게는 돈을 줄 수 없어. 아버지한테 돌아가서 마저 배우고 오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하고 농부는 옆에 있는 아들에게로 말을 돌렸다.

산림은 고향을 떠나와 이제는 갈 길이 없게 되었다. 그는 가방을 베개로 삼고 땅에 누워 이렇게 말하며 잠이 들었다. “성공을 고대하면 방법이 있겠지.”

새벽녘이 되자 가게로 가는 유리공이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산림이 어린 소년이라는 것을 알자 그가 그곳에서 자는 것을 이상스럽게 여겼다. 그가 산림을 살펴보고 있을 때 산림은 잠에서 깨어났다. “난 내 손으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가게에 돌아와서 유리공은 정교한 술잔을 산림에게 건네주며 태양이 잔안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춤을 추고 있는지를 보여 주었다.

“그것은 네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노력을 요한다. 날 보거라 잔을 만드는 비결을 알고 싶거든 나와 약속을 하자.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산림은 수차 되풀이 해서 잔을 만들고 햇빛의 반짝이는 모습을 찾아 보려고 애썼다. 그는 실망해서 이렇게 말했다. “정말 이걸로는 멀었어. 석달이 지나도 마찬가지걸요.”

그러나 유리공은 즐거운 표정으로 “그럼 내일 다시 해 보는거야.” 하고 말했다.

산림은 “아저씨의 기술을 내 손에 갖고 싶군요.” 하며 한숨을 내 쉬었다.

“나도 이걸 배우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단다. 인

내심을 가져야 해.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얼마든지 도와 줄 수가 있단다.”

어느날 아름다움을 그대로 비추어 주는 조그만 병이 산링의 손에서 나오게 되었다. 유리공은 천천히 그것을 빛에 비추어 보았다.

“팔아도 될만 하군.” 하고 그가 말했다. 일주일 동안 산링은 고객이 가게를 드나드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는 유리공의 앞치마 주머니에 동전이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으나 자기의 병을 관심있게 보는 사람을 볼 수 없었다. 그는 “그 병이 사람들이 원하는 아름다움을 지니지 못하고 있구나.”하고 생각했다. 그는 유리공을 만나러 갔다. “저 오랫동안 아저씨의 밥만 얻어 먹었어요. 기술을 배웠지만 아무 소용이 없군요.”

친절하게 그 노인은 젊은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 “일이란 때때로 그 자체가 보상이 될 수 있단다. 나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았어. 해야 할 일이 많아. 슬픈 마음을 갖고 일을 해서는 안되지.”

그러나 산링은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고객이 주인이 만든 아름다운 병을 사가는 모습만 지켜 보고 앉아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냈다.

어느날 유리공은 꼼꼼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물었다. “너의 부친께서는 새벽에 일어나셨니?”

“난 몰라요.”하면 산링은 고개를 휘저으면서 통명스럽게 대답했다.

유리공은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키더니, 이렇게 말했다. “만일 네가 아버지가 하신 방법을 모른다면 아버지께 돌아가서 잘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전에는 산링이 주인의 말에 나선 적이 없었다. 그는 항의조로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만 전 아버지의 기술을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농부란 말이에요.” 그는 안절부절하면서 말했다.

“나는 너의 부친이 성공하신 바를 네가 알아주었던 했을 따름이란다.”라고 유리공이 말했다.

산링은 눈을 내려 감았으며 존경심과 경외심으로 절을 했다. 그날 정오 그는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나의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야. 난 아버지의 성공이 무엇인지도 몰랐어. 난 아버지의 습관에 관심을 갖지도 않았고, 내가 잠에서 깬 때 아버지는 이미 발에 계셨고 저녁에 잠이 들 때까지도 발에 계셨거든.”

이러한 생각이 그의 발걸음을 고향으로 재촉했고 눈을 바짝 뜨게 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수차 중얼거렸다.

이튿날 저녁쯤 해서 그는 낮익은 발까지 당도하게 되었다. “전에도 이 길을 걸은 적이 있었지.” 하며 중

얼거렸다. 앞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등이 굽은 아버지를 볼 수 있었으며, 어린 채소를 정성껏 보살피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발을 갈던 아버지는 골이 끝나는 곳에 서서 주춤거렸다. 산링은 밤의 장막이 서서히 지평선을 내리 덮을 때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 보았으며, 아버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저녁 식사를 하러 집으로 향하였다.

“둘 다 지쳤으니 모두 숨을 돌린 다음에 나타나는 게 좋겠구나.”하며 산링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어린 시절에 뛰어 놀다가 잠을 자던 나무 밑에 가방을 내려 놓고 그만 잠에 빠졌다.

닭이 울기도 전에 산링은 호미 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퇴비 옆 첫번째 열에서 반쯤 꾸부린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아침 이슬이 나뭇잎에서 반짝거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부르는 노래는 만족과 기쁨의 노래였다. 산링은 나무에 가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의 노래를 따라 불렀다.

그가 깨끗이 갈린 밭고랑이를 쉴 때 아버지의 미소와 아침 햇살이 조화를 이루었다. 산링은 계속 숨어서 “내가 여기있는 모습을 나타낼 순 없지. 좀 더 기다리자.”하며 몇번이고 중얼거렸다.

곧 태양은 중천에 떴고, 아버지는 셈으로 가셔서 간단히 점심을 들었다. 잠시 쉰 다음 아버지는 다시 호미를 들고 막대기에 아무렇게나 붙어 있는 색종이에 표시를 해가며 밭갈이를 끝낸 이랑에 정성껏 표를 했다. 조용한 가운데 꾸준히 밭을 갈아가는 모습이 마치 서서히 움직이는 울동과도 같았다.

산링은 어린 시절에 일하기가 싫어서 숨어 있던 그 나무 속에 숨어서 아버지의 참 모습을 지켜 보았다. 이제 그는 마음 속에 치솟는 부끄러움을 피할 길이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꿈 속에서 자랐구나.”하며 그는 슬피 울었다. 그는 마음속에서 어부가 그의 작은 배를 돌보며, 농부가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뜨거운 유리 잔을 구어 만드는 침착한 유리공도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아름다웠던 이들과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추었다. 곧 그는 아버지가 집에 돌아 가실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산링은 나무에서 내려 왔으며 아무도 자기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큰 길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는 다음날 저녁 태양이 떨어지기 전에 유리공의 가게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는 큰 걸음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㉞

# 지식인이 되는 방법

브야른 크리스찬슨    마빈 푸리드먼 그림

나는 입대할지 삼일만에 벌써 소외감을 느꼈다. 새로 출판된 소형 물문경을 읽고 있을 때 멋있게 생긴 친구가 다가오더니 이렇게 물었다.

“자네 물문인가?”

“응 자네도?”

“아니 난 항상 물문과 이야기를 하고 싶었지. 이야기 좀 할 수 있겠나?”

이 말을 들은 나의 가슴은 뛰기 시작했다. 나는 교회에 개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회원이었으며 이런 좋은 기회를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다.

“무얼 알고 싶지?”

그러나 잠시 후에 나는 교회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것을 했다고 후회했다. 이 젊은이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었다. 내가 그에게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자 그는 말끝마다 트집을 잡고는 캐묻기 시작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단 말이지. 어디 증명해 보지?”

“글쎄...하지만...”

“하나님이 선량하시고 자네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면 왜 오늘날 세상에 고통, 질병, 전쟁, 기아와 같은 괴로움을 주었단 말인가?”

“글쎄 그건...”

내 대답은 우리의 토론을 들으려고 몰려온 주위 동료들의 웃음을 자아내고 말았다. 어쨌든 나의 대답이 구차했던 것만은 사실이었다. 근 30분 동안 놀림감이 되고 나서 막사에 돌아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상심한 마음을 달랬다.

군대가 아니더라도 학교나 혹은 동료들 가운데 있는 말일성도 젊은이들은 어느 정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지지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우리가 교회에서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 모든 이상이 교묘하고 미묘하게 공격을 받고 의문시 되고 있다. 교회의 기본 원리가 그렇고 가족 단위와 생활 방식까지도 그렇다. 오늘날과 같은 새로운 도덕, 복잡한 통신, 정치 선전, 자기 철학 주장자들이 판치는 시대에 있어서 보다 더 오류가 많고 잘못 인도하는 사고 방식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를 강렬하게 느낀 적은 없었다.

학급 토론이나 객관적인 대화를 가질 때 여러분은 자신의 생활 양식, 여러분이 행하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에 정면으로 대치되는 반격을 당한 적이 없는가? 매리온 디 행스 장로는 최근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지적이며 교양 있는 사고자들을 자기의 수준에서 대면할 수 있기를 바라시며, 우리의 것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상당히 큰 명령인것 같으나 생각한것 만큼 어렵지도 않다.

나와 사실과를 혼동하지 말라.

여러분은 사진이나 잡지의 그림 안에 숨겨진 그림을 본 적이 있는가? 한번 무심코 보면 생손을 앓는 것 처럼 곁으로 나타나 보이지가 않을 수 있다.

진리도 이와 같다. 때때로 그것은 너무도 잘 가장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알기 위해서는 표면의 껍질을 벗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것에 대한 우리의 도구는 질문, 질문, 더 많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요점을 알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긍정적이고 공격적인 면에 서기 위해서도 그렇다. 도전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방어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에서 실족하게 된다.

언젠가 내가 출석한 어느 대학 심리학 강의 시간에 교수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비과학적이다.” 이때 종교에 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반원들은 기존 종교는 다 모래 성과 같은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내심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으나 군대에서의 쓰라린 경험이 생생하게 떠올라 화제를 바꾸어 보려는 시도를 그만 두고 말았다. 그러나 뒷줄에 앉았던 한 학생이 신랄한 질문을 퍼붓기 시작했다. “왜 기존 종교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느끼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는 대답이 될만한 여러 가지 예를 들었다. 종교 전쟁, 종교 재판, 교회의 부강, 많은 나라에 있는 교인의 빈곤 등을 예로 들었다. “저는 교수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1200여개의 기독교 종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뜻깊은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는 교회가 몇 개쯤은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교수는 그럴 수도 있겠다고 인정했다. 그는 그렇게 많은 종파가 왜 분리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은 놀라운 질문이 계속 그 학생으로 부터 나왔다. “교수님은 어느 종파에 속해 있으며 종교 교육은 어느 정도 받았습니까?” 교수의 대답은 분명했다. 교수는 종교에 관해 별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시다면 교수님은 심리학에서 만큼 종교 분야에서는 전문가가 되지 못하지 않으니까?”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몇 명의 반원은 큰 소리로 폭소

를 내고 말았다. 교수는 무의식 중에 자기는 전문가가 아니며 자기의 입장을 개인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말았다. 곧 심리학으로 화제가 돌아 갔다.

요점이 명확해졌다. 교수도 알았고 우리 학생들도 알았다. 더우기 교수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야”라고 소리를 칠 뻔 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의견을 달리하는 학생이나 교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반대의 의사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거나 정직하다면 이의를 제기하는데 두려워 하지 말라.

문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주어지는 설득을 피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다만 우리는 가장 상식적인 것을 배우도록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수의 입장은 건전한 사고를 함에 있어서 가장 범하기 쉬운 다섯 가지의 오류가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 1. 거짓된 추측

여러분이 접하게 되는 이런 교수와 같은 사람들은 논리에 닿지 않게 그들 나름대로 종교가 역사적인 행위나 전쟁, 의롭지 못한 지도자들,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몰염치한 사업가 등과는 양립할 수 없다고 추론했던 것이다.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조직된 것이며 위에서 든 요인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조직된 종교는 나쁘다고 본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가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한다.

물론 이것은 교수의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다. 이러한 경험은 가정의 기초가 되나 이러한 사실을 혼동하는 것은 오류인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어떤 명제의 사실 여부가 비할 수 없는 가정에 근거를 둘 때 확신을 갖게 된다. 그들은 가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형태의 추종 과정은 정치 운동에서 흔히 나타난다. 우리는 물건이나 아이디어를 파는 일에서도 이러한 것을 본다. 술은 합법적인 물건이다. 마리후아나는 술에 비해 별로 더 나쁠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마리후아나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혹은 마리후아나는 담배보다 더 나쁠 게 없다.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운다. 그러므로 나는 마리후아나를 피울 수 있어야 한다.

### 2.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지식

우리는 아마 그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님의 지식은 정확합니까? 확인하실 수

있지요? 최근 자료입니까? 그 지식은 완전합니까? 그것은 일부만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우리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할 때라도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다. 부정확하고 불완전한 지식은 흔히 속단으로 이끌기 쉽다.

### 3. 전문가인가

그 교수는 심리학에서는 전문가이나 종교에는 어떠한가? 전문가란 토론되는 문제에 관해 특별한 훈련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쌓은 사람이다. 그는 정직하고 정확해야 한다. 편견도 없어야 한다. 편견을 가지고 대하는 것은 전문가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어느 저명한 전문가가 말하길...” 식으로 이야기를 꺼내서도 안된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분명한 신분을 밝혀야 한다. 더구나 화학이나 핵물리학과 같은 정확한 분야에서는 전문가의 간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종교나 도덕 판단 기준, 취향, 사랑 등과 같은 부정확한 주제일 경우에는 그러한 사람의 간증이 의견으로 받아 들여지기 쉽다. 그래서 교회에는 해당 역원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특별하고도 영적인 전문가이다. 그들이 없다면 역사가 증거한 것과 같이 많은 진리가 발견되기 어려웠거나 발견되지 않았을 것이며 고작해야 우리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그들의 동기만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

### 4. 전통

교회로 개종한 존이라는 덴마크 사람이 20년 만에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가족들에게 복음에 관한 이



야기를 하겠다고 생각한 그는 여러 사람을 만났으나 한결같이 우리 선조가 믿던 신앙이면 충분하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다. 그게 고작이었다.

개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교 교회가 수 백년 전부터 제각기 해석한 복음을 자기 나름대로 전하고 있다.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는 형제들 중에는 복음을 믿는 신앙의 기초로 규범화된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독신 생활이 좋은 예가 된다. 일부 신학자들은 그들이 갖는 의식의 근거를 경전에서 찾으려 하지 않는다. 그들은 다만 전통에 의존하고 있다.

그 교수 역시 모든 기존 종교는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는 전통에서 찾고 있다.

물론 우리가 고수해야 할 오래된 원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버리고자 하는 것도 있다. 그러나 전통이란 새롭고 옳은 아이디어를 격퇴시키는 괴물과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다.

## 5. 전부나 아니면 무나

만일 우리가 그 교수에게 사고나 대화에서 절대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어떠한가 묻는다면 그는 즉시 언젠가, 모두, 결코 아니다, 확실히, 분명히와 같은 용어는 모든 상인, 모든 사람, 모든 노동자, 모든 종교와 같은 개괄적인 말을 사용하면 팽팽하고 방어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논리나 전부나 아니면 무냐하는 것이냐 선이냐 악이냐 하는 논리가 모두 이와 같다.

절대적인 진리는 우리가 복음에서 배운 바와 같이 흑백 논리의 문제이지만 종종 단색 배합 설계의 범위에 까지 미치는 수가 있다. 전부나 아니면 무냐 하는 논리는 많은 경우에 단지 확실한 근거가 없는 미숙한 단순화를 가정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에 중간 지점이 없다는 입장을 받아 들일 때 여러분은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된다.

전부나 아니면 무냐 하는 논리의 오류는 정치가에게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 학우와 마찬가지로 친구들도 즐겨 이를 사용한다. 거의 무엇이거나 누구에게든지 이름이 마구 붙여진다. 정도에 따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요약해 보자.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묻고, 여러분이 이에 따르거나 혹은 따르지 않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물어 보아 뜨거운 물을 피해서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다섯 가지 사항은 여러분이 뜻 깊은 진로를 결정했을 때 자신의 길을 지켜 나갈 수 있게 돕는다. 일단 여러분이 이러한 것들을 재빨리 구별해 갈 수 있는 법을 배운다면 자동적으로 험찬 질문이 나올 것이며 어떠한 것에도 대처해 가게 된다.

## 상황을 바꿔 놓음

최근에 개종했고 현재 대학에 재학중인 빅키라는 소녀는 그녀의 도덕관에 관해서 주위 동료와 친구로부터 놀림을 받고 있다. 그녀는 그것이 자기가 믿는 종교의 신조 중 일부라고 말하지 않고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너희들은 도덕적인 가치에 관해서는 도대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렇지?” 당황한 두 소녀는 뜻밖의 기습에 엉뚱한 대답을 하고 말았다. 그녀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다.

“자 내 이야기를 들어 봐라. 너희들은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 자신을 빠뜨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나와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최근에 배운 놀라운 원리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고 있단다. 한번들어보겠니?”

이처럼 강력한 질문은 다른 사람의 질문 공세를 막아 버리거나 그것을 받아 넘겨서 질문자의 의도를 묵살시킬 수 있다. 빅키의 대답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복음의 원리에 관한 대화를 하는 중에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술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 있다.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까? 아니면 호기심에서 물으시는 겁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대화를 끌어 갈 수 있다.

무엇을 말해야 좋을지 모를 때는 상식을 동원한다. 여러분이 모른다는 사실이 여러분을 실망시키게 해서 안된다. 대답으로 구차한 말을 늘어 놓는 것보다 모른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때가 있다. 모를 때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묻는다. 친구, 부모, 감독이 대답을 모를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훌륭한 대화나 토론에는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몇 가지 규칙이 있다. 논쟁적인 방법은 피한다.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람이다. 상대방이 만족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만큼 설명을 한 후에 그의 의견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다. 미소를 짓는다. 호감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 보인다. 재치가 있어야 한다. 말하기 전에 생각한다. 독단적이거나 생색을 부리는 듯한 방법을 피한다. 우월감에 차서 이야기를 한다면 자기 혼자 떠드는게 된다. 무뚝뚝한 대사에 웃음을 자아냄으로써 관심을 집중시키려 하지 말라. 우물우물 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한다.

끝으로 질문을 반복한다. 질문을 받을 때 가끔은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도록 한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능한 한 많이 읽는다. 읽지 않으면 지식인이 될 수 없다. ㉞

# 창조

모세서 2-3; 아브라함서 4-5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에는 그때까지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암흑이 지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 두 분이 “빛이 있으라”고 명하시어 빛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분은 빛과 암흑을 구분하여 밝은 낮과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두 분은 지구의 물 위에 하늘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물을 함께 모아 마른 흙을 땅이라고 불렀고 물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 위에 풀과 목초와 나무가 자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은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해서 하늘에 빛을 주었습니다. 낮을 밝혀 주는 빛을 태양이라고 했고 밤을 밝혀 주는 빛을 달이라고 했습니다. 달과 함께 별들도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께서는 물에 큰 고래와 물고기가 있게 하였고 땅 위에는 새가 날게 하셨으며, 가축과 기는 동물, 기타 온갖 짐승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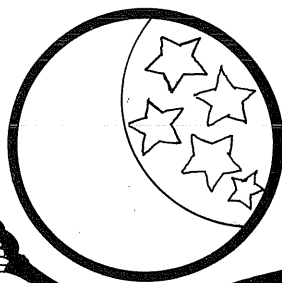
제 7일째 되는 날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으며 일곱째 날을 축복하시고 성스럽게 하셨습니다. ㉔

1973년 11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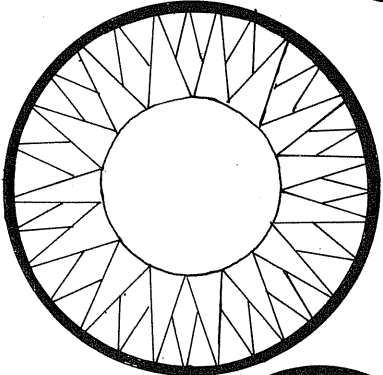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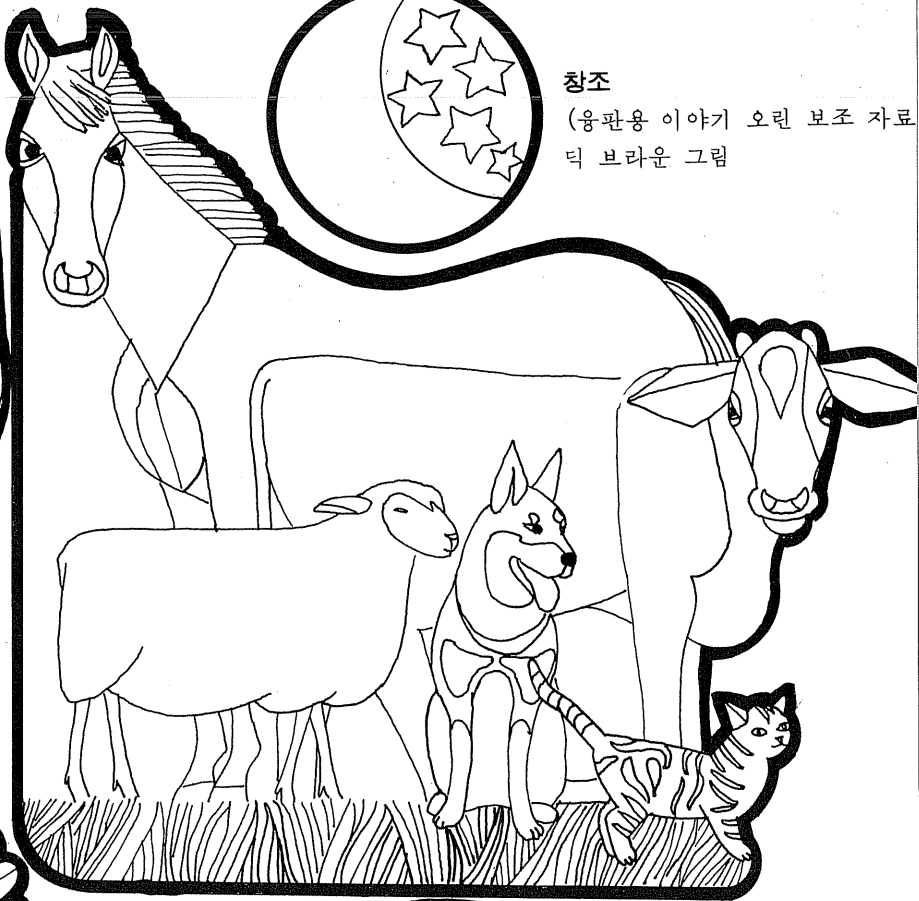
**유의 사항 :**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는 각 그림에 색칠을 하여 오려 낸다. 그림의 뒷면에 용판을 붙여, 용판에 붙였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한다.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검은 색

의 10인치짜리 원을 덧붙여도 좋다. 땅과 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검은 색의 원 중간 지점에 푸른 색의 반원을 붙여도 좋다.

이야기에 맞게 용판에 그림을 붙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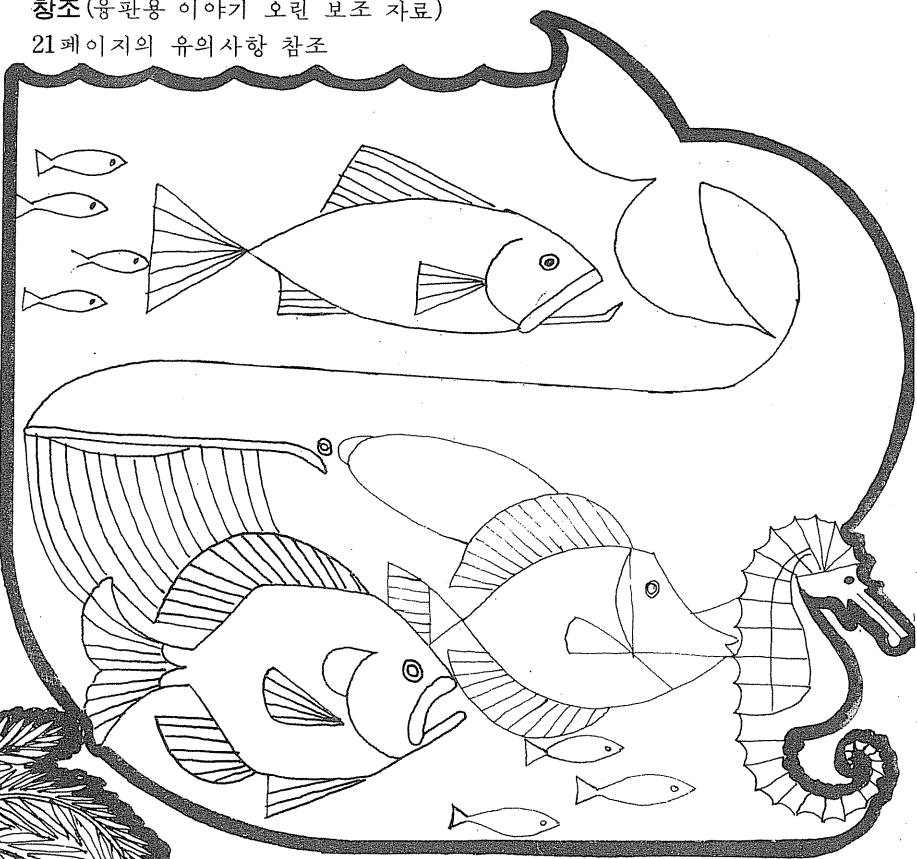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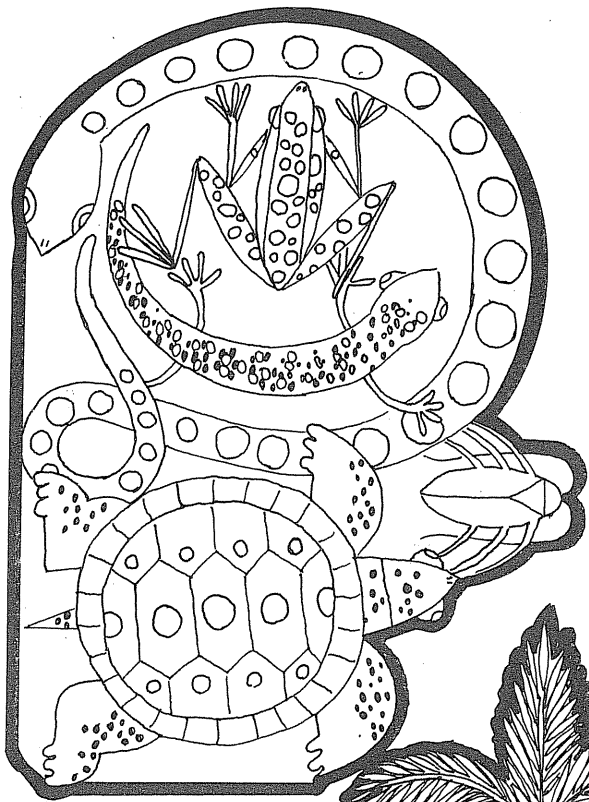
참조  
(용판용 이야기 오린 보조 자료  
딕 브라운 그림)





참조 (용관용 이야기 오린 보조 자료)

21 페이지의 유의사항 참조





# 친구가 친구에게

델버트 엘 스테이플리  
십이사도 정원회

## 주머니 칼과 야구공



**내**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에서 철물점을 하셨다. 후에 다른 두 분과 동업을 해서 사업이 번창해 갔다.

어느날 나는 주머니 칼이 꼭 필요했다. 나는 가게에 가서 칼이 담긴 상자를 찾았다. 나는 칼을 꺼내서 주머니 속에 넣었다. 칼 진열장 옆에 서 있는데 아버지가 오셔서 무얼 하고 있느냐고 물으셨다.

나는 칼이 필요해서 진열장에서 하나를 꺼냈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께서는 화를 내시지 않고 친절하게 그 칼이 자기에게만 속한 것이 아님을 설명하셨다. 그 칼의 삼분지 이는 동업자의 것이었다. 그것은 아버지가 줄 수도 없고 내가 가져 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돌려 주어야 한다고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셨다.

정직에 관한 이 교훈은 나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나는 아버지께서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도록 가르치신 점에 대해서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아버지께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셨고 장사를 하시는데도 정직하셨기 때문에 아버지는 항상 나의 모범이 되셨다.

우리가 정직할 때 불행한 추억이 되는 일을 하라는 유혹을 받지 않게 된다. 우리는 정당하게 우리 것이 아닌 돈을 가져서는 안 되며 남의 숙제를 베껴서도 안 되고 시험 볼 때 속임수를 써도 안 되며 거짓말을 해서도 못쓰며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가져서도 안 된다. 우리가 정직하게 친구를 대할 때 우리는 자신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도 몸소 가르쳐 주셨다. 나는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야구를 즐기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아버지께서 주일날 야구를 하신 적은 보지 못했다. 나도 야구를 좋아했다. 아버지께서는 주일날 야구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로 약속했다.

한번은 큰 야구 시합 구경을 가자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때에도 약속을 지켰다. 아버지의 모범을 생각하고 그에 대한 존경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다.

옳은 일을 아시고 매일 공정, 온전, 정직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다. ㉠

# 축구 공

웨리 존슨 글, 테드 헤닝거 그림

현  
1973년 11월호

쥬리오는 희고 검은 점이 박힌 새 축구 공을 쳐다 보았다. 손으로 조심스럽게 공을 만져도 보고 한 손가락에 올려 놓고 돌려 보기도 했다.

“좋겠구나!”하고 마리아 아줌마가 물었다.

“그럼요.”하고 쥬리오는 공이 자기 손에 있다는게 신기한 듯 대답했다. “그런데 왜 이걸 저에게 주셨죠?”

마리아 아줌마는 웃었다. “나를 도와 주었기 때문이지.”하며 대답했다. “심부름도 해주고 마당 청소도 해주고 이 공으로는 부



죽 하지만 줄 수 있는게 이것 뿐이구나. 잘  
놀아라.”

쥘리오는 그의 아주머니를 바라 보았다.  
그는 아주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 알기 때  
문에 그런 큰 선물을 받아도 될지가 궁금했  
다. 그러나 그가 공을 받지 않는다면 아주  
머니 눈에서는 눈물이라도 흘러내릴 것 같  
았다.

“고마와요.” 하며 그는 대답했다.

“왜 내가 이걸 주었는지 기억해 주기 바  
란다. 이제 가서 놀아라.” 아주머니가 말했



다.

쥬리오는 아주머니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다시 하고는 공을 들고 뛰어나갔다. 그는 손으로 공을 굴려 보면서 “왜 내가 이걸 주었는지 기억해 주기 바란다.”고 하신 아주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생각했다.

새싹이 돋는 나무를 보자 쥬리오는 곧 그 생각을 잊게 되었다. 봄에 공을 차는 기분은 말할 것도 없는데 더구나 제 앞으로 공이 생겼으니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쥬리오는 공을 땅에 던지고는 뛰어가면서 재치있게 몰아 길 모퉁이까지 왔다.

“야 그건 어디서 났지?” 안토니오가 집에서 나오면서 물었다.

“마리아 아줌마가 주셨어.” 쥬리오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그래! 멋진데 같이 차자!”

“물론이지”하고 쥬리오가 대답했다.

안토니오와 쥬리오는 공을 이리 저리 몰고 놀았다. 곧 다른 아이들도 모였고 축구 시합을 할 수가 있었다.

마리아 아주머니가 창문에서 바라 보았으며 쥬리오는 공을 차면서 아주머니를 볼 수 있었다.

쥬리오는 축구를 좋아했고 잘 했다. 언젠가는 브라질 대표 선수가 되고 싶었다. 마리아 아줌마도 그것을 알고 계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래서 그 공을 주셨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공이 그에게로 굴러 왔을 때 그러한 생각은 사라지고 말았다. 재빨리 그는 고울을 향해 공을 몰고 갔다. 고울 근처에 접근하여 공을 힘껏 찼는데 공은 총알 같이 날아가 고울인이 되었다.

“잘 했어.” 하며 안토니오가 소리쳤다. “이제 우리가 리드했어!”

인도에서는 어느 소년들이 이들의 시합을 지켜 보고 있었다. 그는 소년들이 시합을 하는 곳으로 다가 갔다.

“안돼.” 안토니오가 쥬리오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폴로가 온다. 재는 시키지마! 게임을 망쳐 놓는단다. 그가 오면 우리는 지는 거야!”

폴로가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그는 공도 쉽게 빼앗기며 어떤 때는 고울조차 분간 못하고 뛰었다. 그러나 쥬리오는 폴로가 축구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도 붙여 줄래?” 하고 폴로는 애원하듯 말했다.

쥬리오는 다른 소년들을 바라 보고 안된다고 말할 참이었다. 이때 그는 마리아 아주머니가 창가에서 있는 쪽을 쳐다 보았다. 그녀 역시 쥬리오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관심있는 표정으로 지켜 보고 있었다.

“왜 내가 이걸 주었는지 기억하기 바란다.”는 아주머니의 말이 쥬리오의 머리에 떠올랐다. 다시 한번 그는 마리아 아주머니를 쳐다 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그녀를 돕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는데, 지금도 폴로를 위해서 계속 그래 주기를 원하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쥬리오는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폴로를 보았다. “그래 너도 같이 하자.” 그는 말했다. 다른 소년들이 말을 하기도 전에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사실 안토니오는 잘 하지. 안토니오가 너를 도와 줄거야.”

폴로의 얼굴은 빛났다. “정말 도와 줄래?” 하며 반겨 물었다.

안토니오도 쥬리오를 보고 웃었다. “그래 도와 주지! 우리 모두 네가 훌륭한 선수가 되도록 도울게!”

그들이 다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쥬리오는 창쪽을 바라 보았다. 마리아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쥬리오는 시합을 계속하기 전에 손을 흔들며 보였다.

갑자기 그는 마리아 아주머니가 왜 자기에게 새 축구공을 주었는지를 알았다. ㉞



## 빅타 엘 브라운 감독과의 인터뷰

1973년 11월호 **영광**

이의 마음 속에 살아 있는 한 복음 가운데에서 형제애로 단합되는 큰 영향력을 누구나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두루 통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백성을 하나님의 신권을 지닌 모든 형제로 뭉칠 것입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형제애의 축복을 맛보게 될 사람들입니다.

젊은이들이 당면하는 문제 중의 하나로 복장, 두발의 표준, 개인의 순결, 습관성 약 등등에 대한 사회적 압력을 들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 격려나 충고의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사회적인 압력이 실제로 있고 우리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또한 부정적인 사회 압력에 관해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해 왔습니다. 나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긍정적인 사회 압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깨끗한 생활을 하는 사람과 사귀고 있다면 부도덕한 행위에 가담하는 것이 어렵거나 어색하게 생각될 것입니다. 교회나 복음의 도덕 표준은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추종자라면 정직, 온전함, 순결이라는 미덕을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볼 때 성에 관한 문화적 혹은 사회적인 태도에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나 복음은 한 가지의 표준만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합리화나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이 주님께서 왜 복장이나 언행에서 겸손하라고 가르치셨는지를 이해하게 되면 사회적인 압력이 그들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간음하지 말라”고 명하셨으니 여기에는 사통과 동성애도 포함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부도덕이 간음과 사통에 이르기 쉬운 전초가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성의 의견을 받아 들이는 태도 위험이 있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젊은이가 참으로 복음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면 미니 스커트나 꼭 끼는 바지를 입는 것 등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 미덕, 자존심 등이 문제되는 것만큼 스커트의 길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교회의 청년들을 만나고 느끼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회의 젊은이들을 만날 때마다 나는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결의를 발견하곤 했습니다. 그 일례로 브라질에서 있었던 선교부 대항 아론 신권 청소년 성구 대회를 들 수 있습니다. 나는 소란스럽지 않고 진지한 태도로 성구를 인용하고 해석하는 아론 신권 청소년에게서 대단한 열의를 보았습니다.

나는 여러 나라의 성찬식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사모아에서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75명 정도가 참석했습니다. 몹시 더운 날이었지만 모든 집사와 제사는 깨끗한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자리를 한 스테이크 부장께서는 이것이 주님과 이 성스러운 의식에 존경의 뜻을 표하는 그들의 방법임을 알려 주었습니다. 밖으로 나타난 이 결의가 내심에 있는 강력한 뜻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영이 증거할 때 문화, 언어, 민족 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가 다름에 따라 젊은이들이 당면하는 문제도 다르겠지만 복음이 젊은

리시오?”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한 대답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올바른 원리를 가르치며, 그들이 스스로를 다스립니다.” 이 원리는 짧은 치마가 아닙니다. 이 원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삶을 통해 구세주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부도덕한 복장이나 행위는 이러한 원리를 파괴시킵니다. 나는 젊은이가 이러한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들이 그런 원리를 생활에 옮긴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습관성 약은 사탄이 고안해 낸 가장 강력하고 악한 도구입니다. 약은 자유의지를 파괴함으로써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습관성 약을 피해야 하고 이에 빠진 사람들을 멀리 해야 합니다. 젊은이가 이미 이 함정에 빠졌다면 그는 즉시 부모나 감독에게 가서 이 습관을 극복하기 위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교육을 강조하나 아직까지도 고등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지역이 많습니다. 또한 그러한 교육을 활용할 기회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충고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젊은이가 대학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할 때 흔히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목표에 적합할 때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무시하지 못할 가치있는 목표가 또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장사를 하는데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일 어느 사람이 훌륭한 연공이라면 그것으로 좋은 것이고, 훌륭한 의사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복음이 가르치는 원리는 중간에서 만족해서는 안되고 영예로운 추구를 통해 탁월한 경지에까지 도달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활동은 회원에게 훌륭한 훈련의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일상 생활의 모든 면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기초가 됩니다. 예술(연극, 웅변, 음악)분야에서 활동적인 사람이나 경험을 쌓은 젊은이는 이러한 기회를 받지 못한 동료들 가운데서 독특하게 나타납니다. 교육과 훈련에 신앙과 노력이 결합되면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치나 사회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우수함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건설적인 삶의 방향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공을 부와 명예, 직업상의 성공과 동일

시하는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경제적인 성공은 성공을 측정하는데 가장 순위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해서 성공한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얻은 명예나 부는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 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참으로 성공한 사람이란 주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환경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였을지도 모르나 모든 이해심을 초월하고 이 세상의 것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의 참된 척도는 결혼해서 가정을 갖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자녀를 돌본 것으로 측정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로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사람이 세상적인 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주님께서는 남편이 합당하게 가족을 부양하기를 바라십니다. 이것은 그가 호화 저택이나 큰 부를 지녀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며 그가 가족의 신체적이고 영적인 필요를 돌보아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자녀가 행복한 가정 생활에 기여하도록 맡은 바를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평생을 독신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오늘날 처럼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여러가지 방법으로 타인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계명을 지키고 복음을 실천한다면 마찬가지로 성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책임 중에는 교회 회원의 복지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질병과 기아가 만연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교회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며 지역 신권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밝혀주신 방법에 따라 우리는 굳건한 기초를 쌓고 있으며 한 번 발전한 다음에는 퇴보하는 일이 없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의 건강을 맡아 보는 선교사와 농사 일을 맡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우리는 멀지 않은 장래에 사회봉사를 맡는 선교사도 갖게 될 것입니다.

건강관리 선교사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간호원, 의사, 치과 의사, 기타 건강 봉사 기구에서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현재 많은 나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러한 특별한 선교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



의 노력으로 다음에 오는 세대는 훌륭한 건강을 누리며 보다 뜻깊은 삶을 영위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 건강관리 선교사들은 적절한 육아법을 지도하여 여러 나라에서 높은 유아 사망율을 줄이는데 공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거두어 들인 곡식을 활용하여 식생활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적당한 영양 관리법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업관리 선교사도 건강관리 선교사와 같은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농사일에 관한 올바른 원리와 기술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트랙터나 미국에서 사용하는 최신형 기계를 가지고 선교지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주민들이 현재 하고 있는 방법을 개선하고 보다 많은 곡식을 수확하며 다른 야채나 과일을 재배하는 법과 경작하는 법, 지난 해에 묵은 찌꺼기를 사용해서 퇴비를 만드는 방법등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 기본 원리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젊은이에게 주고 싶은 충고의 말씀을 한마디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전하고 싶은 첫째의 충고가 있다면 해롤드 비리 대관장님이 대관장에 취임하시면서 교회 회원에게 하신 말

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는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가 줄 수 있는 최선의 충고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잠시 부연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세미나가 정학습 프로그램이 전세계에 있는 교회의 젊은이에게 실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누구라도 교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음을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젊은이가 복음을 공부하고 구세주와 가까와지며 그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다면 모든 것이 그에게 더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며,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는 이때 더욱 특유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가 마음껏 복음을 실천하고 생활을 통해 참된 말일성도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나타내 보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로운 지도자가 되도록 경전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그들에게 우리가 지닌 사랑과 확신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립니다.

## 역대 관리 감독단



1973년 11월호

**1** 831년 주님께서 계시로 말일에 초대 관리 감독을 부르신 이래 다음의 열분이 이 직에서 봉사하여 왔다.

1. 에드워드 패트리지—1831년 2월 4일, 38세로 계시에 의하여 부름을 받음; 1840년 5월 27일 나부에서 사망.
2. 뉴엘 김블 휘르니—커트랜드의 초

성도의벗 1973년 11월호

3. 에드워드 헨터—1851년 4월 7일 58세의 나이로 지지받음; 1883년 10월 16일 솔트레이크 시에서 사망.
4. 윌리엄 보우커 프레스톤—1884년 4월 6일 53세의 나이로 지지받음; 건강의 악화로 1907년 12월 4일 해임됨.
5. 찰스 윌슨 니블리—1907년 12월 48세의 나이로 지지받음; 1925년 5월 28일 허버 제이 그랜트 대관장의 제이 보좌로 지지받음.
6. 실베스타 케일 캐논—1925년 10월 6일 48세의 나이로 지지받음; 1938

7. 리그랜드 리차즈—1938년 4월 6일 52세의 나이로 지지받음; 1952년 4월 10일 사도로 성임됨.
8. 조셉 엘 워드린—1934년 4월 6일 제이 보좌로 지지됨; 1946년 12월 12일 제일 보좌로 지지됨; 1952년 4월 6일 58세의 나이로 관리 감독으로 지지됨. 1961년 9월 30일 건강의 악화로 해임됨.
9. 존 에이치 반덴버그—1961년 9월 30일 56세의 나이로 지지됨; 1972년 4월 6일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지지됨.
10. 빅타 엘 브라운—1961년 9월 30일 제이 보좌로 지지됨; 1972년 4월 6일 57세의 나이로 관리 감독으로 지지됨.

# 파숫군이여 악인을 깨우치라

**예**언자 에스겔은 이같이 경고하였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숫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죄 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라” (에스겔 3 : 17-19)

영감을 받아 쓴 몰몬경의 예언자들은 오늘날을 보았고 원수의 전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고 하셨습니다.

“보라 그 날에 악마가 인간들의 마음에 노여움을 일으키며 선한 것에 대하여 성을 내도록 책동하며

“많은 다른 자들을 달래어 욕욕의 안식처를 좇게 하며...

“...사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권세와 성신의 은사를 부인하는 자에게 화 있을 진저”(니파이이서 28 : 20-22, 26)

주님은 현대의 예언자 요셉 스미스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은 땅끝까지 미치지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들을 수 있느니라.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종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며 예언자와 사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백성들로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이는 저들이 나의 의식을 저버렸고 나의 영원한 성약을 깨뜨렸으며

“주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 주를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모든 사람은 제마음대로 생활하며 자신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을 구하였음이라. 그 형상은 세상의 모습이라...

“나 주가 이야기한 바는 참되도다. 이를 변경하지 아니하거나와 천지가 없어져도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지리라. 내 자신의 음성이거나 내 종의 음성이거나 다 같으니라.” (교리와 성약 1 : 11, 14-16, 38)

이 경고의 말씀은 140년 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

리가 자기 만족과 악인의 기교에 눈이 멀지 않은 한 우리는 살아 있는 증언자입니다.

시온성의 파숫군인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 굳건히 다지고 있는 기초를 흔들려는 악마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의욕이며 권리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니고 이러한 파숫군의 일원으로 나는 이 의무와 목표를 겸손히 받아들이고 두려움없이 나의 의무를 기쁘게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심각한 시기에, 우리의 의견이 정치적으로 단속되고 정부가 점점 우리의 일상 생활에까지 침범하는 경우라도,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저해하는 비난을 두려워하여서는 안됩니다.

현재 처하고 있는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완전히 경고에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비난을 초래합니다. 우리 중에는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활, 복지, 자유를 위협하는 것들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묵과하고 지나친 바로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안락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영원한 진리의 터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대 경향이나 압력이야 어떻든지 우리는 표준을 버리지 않습니다. 진리에 대한 우리의 중심은 동요될 수 없습니다.

부도덕하고 부정한 행동에 대하여 경고하는 것은 태고로부터 지고 온 하나님의 제자와 예언자의 짐입니다.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파숫군으로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과업입니다.

우리는 원칙을 희생시키는 절충과의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절충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결코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의 파숫군 한 사람이 이같이 경고하였습니다.

“미지근한 충성심은 파괴하나, 정열적인 헌신은 모든 원인과 그것을 지지하는 자에게 생명과 생기를 줍니다.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자, 항상 마지 못하여 따르는 자, 가슴을 조이면서 진리를 불드는 자, 이러한 자들의 눈에는 그들 앞에 세상의 고난이 넓게 펼쳐진 듯이 보일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상의 그리스도 교회에서도 중립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편이든지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타협을 경멸하는 굳건한 신앙은 교회와 그 회원을 승리로 이끌며 높은 목적을 달성하게 합니다.

“세상의 최종적인 승리자는 두렵없고 위축됨이 없이 진리를 붙들고, 예라는 말 뿐 아니라 아니오라는 말을 당당히 할 수 있으며 ‘실수에는 타협이 없다’라고 새겨져 있는 깃발을 높이 휘날리는 자들이며 이들의 수는 적든지 많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관점과 생활을 관용으로 일치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하여 우리는 신조를 버려서는 안되며, 오히려 우리의 신조를 그들이 따를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복음은 영원한 진리 위에 있습니다. 진리는 결코 없어질 수 없습니다.”(존 에이 윌소, 대회보고, 1941년 4월 116, 117페이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부패이다. 이는 토양의 부

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도덕성의 부패를 의미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미합중국은 자유의 나라로 유명합니다. 미합중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자유의 원칙 위에 그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자유롭습니다. 이 국가는 영적인 기초가 튼튼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이 국가란 예언자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831년 불란서의 유명한 역사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불란서 국가의 의뢰를 받아 미국에 와서 미국의 법원에 대하여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의 정치와 사회 구조에 대하여도 연구하였습니다.

10년이 못가서 드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네권의 저서를 내놓으므로써 일약 유명한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위대함에 대한 그의 설명입니다.

“나는 미국의 위대성과 특징을 편리하게 시설을 갖춘 항구와 광대한 하천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것은 그곳에 없었으며, 미국의 비옥한 토지와 광대한 초원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도 없었으며, 미국의 풍부한 광산과 세계적인 교역에서 찾으려 하였으나 그곳에서도 찾지 못하였다. 미국의 교회에 들어가서 의에 불탄 연단에서의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비로소 미국의 탁월성과 그 위세의



주님은 예언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었습니다.  
 “.....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그 백성들로 부터 절단될 날이 임하리라.”

비결을 알 수 있었다. 미국은 선하기 때문에 위대하다. 미국이 선하기를 그칠 때 미국의 위대성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자, 원칙, 그리고 국가의 유희, 제럴드 엘 뉴퀴스 편찬 [솔트레이크시, 유타, 퍼블리셔즈 프레스, 1964] 60페이지)

자유와 상태...선한 상태로 남아있고자 하는 우리의 의리도 얼마나 강합니까? 가장 호감을 갖게 하는 형태로 가식한 거짓 사조와 거짓 관념은 부지불식간에 우리 안으로 우리의 도덕 관념을 해치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이들은 안전이라는 밝은 약속과 여러 종류의 확실한 듯한 보장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들은 수많은 이름으로 자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 가지 공통된 점, 즉 인간의 성품과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유를 말살시키려는 점을 갖고 있습니다.

거짓 안전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면 노력을 들여야 합니다. 크게 인기를 불러 일으키는 신청이 들어 오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성원을 받습니다. 매력이란 가장 위험한 프로그램에 한층 끌리는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복지를 보장한다는 이름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또 다시 유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유는 직접적인 공격을 받아 없을 때도 있으나 소홀히 하기 때문에 잃게 되는 때가 많습니다.

너무 오랜 동안 너무 많은 미국민과 세계의 자유민들은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경제와 정신적인 원리와 전통에 대항하는...즉 자유에 대항하는 범죄의 부속물로 골치를 앓아 왔습니다.

이제는 선과 자유의 길을 진전시키도록 노력하십시오. 주님의 도움과 축복이 있으면 자유세계의 모든 국민은 두려움이나 의심 없이 오직 확신만을 가지고 내일을 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수 년전에 이

렇게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발전이 아니라 정신적인 발전이며, 지식의 힘이 아니라 도덕의 힘이고, 지식이 아니라 성품이며, 정부가 아니라 문화이고, 법이 아니라 종교이며, 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 볼 수 없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강조해야 할 생의 일면이며 이 일면을 강화한다면 다른 한 면은 자연스럽게 강화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 기초가 굳건하면 상부구조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언자, 원칙, 그리고 국가의 유희, 35페이지)

자유로운 국민인 우리는 여러 가지 국면에서 위대한 로마 제국을 쇠망으로 이끈 양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역사가들은 로마의 쇠망을 초래한 제반 요인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로마는 우리 자신의 개혁자의 기질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개혁자로 시작하여 2세기 동안의 전성기를 지나 그 절정을 이루고 점점 쇠퇴하여 3세기가 가기도 전에 멸망되었다. 그러나 멸망으로 이끈 범죄는 둘째 세기 말에 극심하였다.

“그 당시에는 게으른 부자와 게으른 가난뱅이가 극심하게 늘어갔다. 후자(가난뱅이들)는 오늘날의 우리가 실시하는 복지계획과 같은 영구적인 배급을 받았다. 이 제도가 영구화됨에 따라 배급 받는 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이들은 상당한 위세를 가지고 정치적인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 주는데에 주저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태는 계속되었다. 소위 군주라 하는 자는 이들의 비위를 맞추어야 했다. 그 당시의 로마의 주축을 이루던 강대한 중산 계급에게는 점점 커지고 강력해지는 관료 제도를 지지하기 위하여 더욱 과세가 심해졌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수입에 부과세를 부과하였다. 정부는

적자 상태의 운영을 계속하였다. 오늘날의 50센트에 해당되는 은전한 테나리온은 그의 은빛을 잃게 되었다. 이것은 정부가 은의 함량을 줄이자 구리색으로 변했다.

“그때에도 그레샴의 법칙이 적용되었다. 순 은전은 곧 사라졌다. 숨겨진 것이었다.

“군복무는 로마인이 크게 명예롭게 생각하는 의무였다. 사실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로마군에 자원하여 입대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나치게 풍요하여 지자 로마의 젊은이들은 군복무를 기피하고 안락한 도시 생활을 즐기려 하였다. 이들은 화장품을 사용하고 여자의 여러 모양, 의상을 따르는 등 거의 성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역사가들은 말한다.

“교사와 학자들 사이에는 전유 학파라고 불리는 학파가 형성되었다. 머리와 수염을 길게 기르고 의복을 되는 대로 입고 다니던 이 학파의 학자들은 소위 말하는 중산 계급의 가치관을 경멸하면서 세상적인 부에 무관을 표명하였다.

“도덕이 문란하여졌다. 교외나 도시의 대로로 걸어 가는 것이 안전하지 못하게 되었다. 곳곳에서 폭동이 일고 때로는 전 도시가 불바다가 되어 버리기도 하였다.

“게다가 세금 징수와 통화 팽창이라는 쌍자 질환이 죽음을 몰아오려는 기세로 기다리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요인들은 중산 계급의 기개와 야망을 압도하였다.

“로마는 무너졌다.

“현재 우리는 두번째 세기 말에 다가 서고 있다. (1969년 뉴욕주 아이젠하워 대학에서 행한 로날드 리건의 연설.)

1787년 에드워드 기본은 그의 작품 로마 제국의 쇠망기를 완성하였다. 그는 쇠망의 원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1. 인간 사회의 기본이 되는 가정의 위엄성과 신성함을 부정.

2. 자꾸만 높아가는 과세와 민중의 향락의 급식과 향락에 공급을 남용함.

3. 환락을 위하여 해마다 격렬해지고 난폭해지는 운동.

4. 실질상의 적이 국민의 부패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막강한 군비만을 무장함.

5. 종교의 부패...즉 신앙이 형식화되고, 생명을 불러 일으키는 힘을 잃었으며, 사람을 경고하고 인도하는데 무기력해짐.

오늘날 우리에게 이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까? 로마를 멸망시키고 그 요인들이 자유 세계의 국가를 멸망시킬 수 있었습니까?

역사 공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역사 공부를 현재라는 중요한 달성의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공하는 이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눈부시게 번창하는 이 시간에도 국가는 자체의 파괴의 씨를 뿌릴지도 모릅니다. 국가의 내부가 약해지고 부패되는 한 결코 위대한 문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의 연구는 미래의 진로를 안전하게 이끌어 주는 지침이 됩니다.

자유 세계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분기하여야 합니다. 근원적이고 기초적인 원리...도덕적이고 정신적인 원리...가 과거에 성공을 이룬 기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축복을 계속 누리려면 우리는 이와 같은 기초적이고 근원적인 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와 도덕은 진실이라는 형체의 분리될 수 없는 양면입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진리와 우리의 행동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자유 세계의 기초적인 전통으로 여겨졌던 정신적이며 도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굳건히 서 있습니다. 우리는 태초로부터 문화의 기초를

이루어 왔던 영원한 진리를 저해하려는 모든 악마의 유혹에 대항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모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지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크고도 첫번째 계명을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또한 높은 정신적, 도덕적 원리를 고수하는 성품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고귀한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순결이 시대의 사조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지켜야 할 표준을 한가지 주었는데 그것이 도덕적인 순결의 표준입니다. 우리는 낙태를 반대하며,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인 가정과 가족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성스럽지 못하고 순결치 못한 모든 행동을 반대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가 계속될진대 전능하신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주의와 재물 획득에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번영, 안정, 자유가 갖들인 정신적인 지주를 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시며 죄앞에서 겸손하게 되도록 해주십니다.

기도하는 국가의 품안에 있을 때 안전이 있습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무릎을 꿇고 주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주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국가가 드리는 기도의 세력은 원자 폭탄의 위력보다 더 강하고 더 무섭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원을 열 수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의 능력은 인간의 손으로 제조한 어떠한 능력보다도 강하고 위대합니다. 우리의 기초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 영원한 진리를 받아 들였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일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도 강력한 기도는 자신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수년전에 어떤 사람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옛날식의 가족 기도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을 통하여 증명된 진리인 옛날식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으로서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는 축복의 원천, 자유와 도덕적 정신적 표준에 대한 위협, 겸손해야 한다는 필요성, 고귀하고 시간이 증명한 축복을 고수하려는 용기있는 행동 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최** 근에 롬니 부대관장님께서 “복지 사업이란 단지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복지 사업이란 단지 교회 회원들의 현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만이 아닙니다. 복지 사업은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복지 사업에는 감독의 창고에 있는 필수품 또는 일용품은 원조받지 않아도 되는 96퍼센트의 회원도 관여됩니다. 복지 사업은 원조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원조를 해야 하는 사람까지를 위한 것입니다.

경전에는 롬니 부대관장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모사이야서 베냐민 왕은 다 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구걸하는 자를 두어 죽게 하지 아니하리라.

“혹 너희는 이르기를 사람은 저마다 저 스스로 자기의 비참을 불러 갖는 것이 때 나는 잠잠하여 음식을 나누거나...나의 재물을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가 형벌을 받음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할 것이나,

“...이렇게 행하는 자는 크게 누우칠 것이요, 이렇게 행하고도 행한 바를 회개치 아니하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요, 하나님의 왕국이 저에게는 조금도 즐겁지 아니하리라.

“이는 보라, 우리가 모두 걸식하는 자가 아니냐?...” (모사이야



본 제이 페더스톤  
관리 감독단 제이 보좌

서 4:16-19)

또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는 구리와 울리는 쟁과리가 되고” (고전 13:1)

또한 하늘과 땅의 위대한 구세주는 그의 훌륭한 비유로서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테를 얹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테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브라함! 너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 하리라.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누가 복음 16:1-9, 31)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관대한 처사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은 인간의 복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사업은 보다 높은 차원에 속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복지 사업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 사업이란 비단 물질적인 복지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교회내에 사회적, 정서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줍니다. 복지 사업은 몸이 완전치 않은 사람들의 건강을 보살핍니다.

우리는 이 분야에 크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 대관장님은 이를 아름답게 설명하셨습니다. 1946년 10월 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끄는 힘이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몇 년전 밤에 집으로 돌아와 자리에 누웠을 때, 나는 내가 부름을 받은 그 높은 자리에 합당하게 되려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그 때에 마음의 평화와 위안이 깃들었고, 몸으로 일어난 일을 말해 주고 느낌을 주는 영감은 성스러운 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대회 보고 1946년 10월 146페이지)

예언자께서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계신 것이 아닐까요?

나의 친구중에 훌륭하고 재능이 많은 작가인 레스 고우즈 형제가 있습니다. 나는 복지 사업이 그의 가정에 맨 처음 어떻게 들어 오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쓴 이야기를 인용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나의 집의 경우로 보면 복지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은 1400여만 명이 스페인 전염병인 ‘흑사병’으로 죽어 가고 세계 제일차 대전이 치열하던 1918년 가을, 사라토가

로드의 리하이 서부 올드 필드에 서 었다.

“그 해는 겨울이 일찍 찾아 왔으며, 유난히 사탕 무우가 땅속에서 많이 얼었다. 나의 아버지와 동생 프란시스는 매일 뽕뽕 얼어 붙은 땅속에서 한 가마 정도의 사탕무우를 겨우 뽑아 내어 꼭지를 잘라내고, 커다란 붉은 사탕무우 마차에 올려 놓고는 사탕 공장으로 끌고 가는 것이었다. 나와 내 동생 플로이드는 군에 있었으며 프란시스(사람들은 그를 ‘프란즈’라고 불렀다)는 아직 어렸기 때문에 농장 일을 돌볼 수가 없었다. 땅은 얼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일은 진척이 거의 없고 고되기만 했다.

“그들이 간신히 가족을 위한 농작물을 수확하여 하루 하루의 끼니를 이어가던 어느날 옥든 주립 상업학교 교장이시던 조지 엘버트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다. 학교 농장 지배인 찰스 형제의 아홉살된 아들 케베스가 전염병으로 앓다가 바로 몇시간 전에 아버지의 무릎에서 죽었다는 비통한 소식이였다. 그래서 아버지가 옥든에 오셔서 소년을 집으로 데리고 와 리하이 묘지에 있는 가족 장지에 매장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구형 시보레 차를 몰고 어린 손자의 시체를 장지로 데려오기 위하여 옥든 화이브 포인츠를 향하여 달렸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들(찰)은 코와 귀에서 분비물이 흘렀고 열로 타버려 보기 흉하게 갈색으로 변해버린 사랑하는 아들의 차가운 시체위에 엎드려 있었다.

“‘제 아들을 집에 데려 가주세요’ 비탄에 잠긴 젊은 아버지는 중얼거렸다. ‘그리고 가족 묘지에 묻고 내일 다시 들려 주세요.’

“아버지는 케베스의 시체를 집에 갖고 와 목수집에서 관을 짜고, 어머니와 여동생 제니, 엠, 헤이 줄이 관 안에 쿠션과 린넨을 뒀다. 아버지와 프란즈와 친절한 이웃 두분은 무덤을 팠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가족들이 무덤 파는 일을 해야만 했다. 간단한 의식만이 허가되었다.

“장지에서 가족들이 돌아 오기가 무섭게 조지 엘버트(버트)는 또 다른 무서운 소식을 전화로 알려 주었다. 찰이 죽었고 그의 아름다운 두 딸—베스타(7세)와 엘레인(5세)이 위독하며 두 아기—렐돈(4세)와 폴라인(3세)은 증세가 보인다는 것이었다.

“장의사를 경영하는 사촌 탈킨은 찰을 위한 관을 짜서 찰의 시체를 넣어 화물차로 보냈다. 아버지와 어린 프란즈는 역에서 찰의 시체를 찾아 갖고 오다가 이웃에게 알리기 위하여 옛집의 현관에 놓았다. 그러나 사람들은 흑사병으로 죽은 사람의 시체에 가까이 가는 것도 무서워 했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와 프란시스는 이웃 친지들과 함께 묘지를 준비하고, 훌륭한 찰스 하이럼 고우즈의 영을 창조주에 맡기는 조촐한 영결식을 준비하였다.

“다음날, 강하고 굵힐 줄 모르는 아버지는 또 하나의 침통한 일을 해야만 했다—이번에는 금발과 웃음을 잃지 않던 크고 푸른 눈을 지녔던 베스타의 시체를 갖고 와야 했다.

“아버지가 옥든집에 도착하자 슬픔으로 거의 미친 어머니 줄리엣이 금발의 곱슬머리와 푸른 눈을 가진 아기 천사 엘레인이 누운 침대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줄리엣은 비통하게 흐느끼면서 ‘하나님 아버지’이 애만은 제발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키우게 해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저의 사랑하는 가족을 데리고 가지 말아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베스타의 시체를 안고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무서운 소식은 또 전해졌다. 엘레인이 죽어 아빠와 오빠 케베스, 언니 베스타에게로 갔다는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또 한번 견딜 수 없



는 여행을 해야 했고 일주일 동안 네번째 무덤을 준비해야 했다.

“엘레인을 묻고 돌아 온 날 저녁에는 전화가 걸려 오지 않았고 그 다음 날에도 죽음의 비보는 오지 않았다. 아마도 조지 에이와 그의 용감한 동반자 엘라가 고생을 하면서도 어린 렐돈과 폴라인을 구할 수 있었던 모양이었다. 간호원이었던 사촌 레바 문스가 때마침 와서 도와주었던 것은 정말 다행한 일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아버지는 아들 프란츠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오늘은 밤에 나가서 사탕무우를 뽑아야겠다. 더 열기 전에 손을 봐야지. 용기를 내. 마차 준비를 하고 빨리 서두르자.’

“프란시스는 아버지를 모시고 베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올랐다. 사라토가 로드를 달려 가면서 그들은 이웃 농부들의 사탕무우를 실은 마차를 여러 대 지나쳤다. 그들을 지나칠 때마다 이웃 사람들은 손을 흔들며 “안녕하세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낙심 마십시오.” 등의 인사말을 건넸다.

“마지막 마차는 항상 즐겁기만 한 붉은 머리의 주근깨 투성이인 마을 코메디안 재스퍼 롤프의 것이었다. 그는 즐겁게 손을 흔들며 외쳤다. “이젠 다 끝난 겁니다”

“아버지는 프란시스에게 얼굴을 돌리고 ‘정말 더 이상 일이 안 일어나면 좋으련만’ 하고 말씀하셨다.

“농장문에 이르자 프란시스는 크고 붉은 사탕무우 마차에서 뛰어 내려 문을 열고 밭으로 마차를 몰았다. 말고삐를 잡아 당기면서 마차를 멈춰 세우고는 잠시 멈춰 서서 사방을 살살이 주의하여 보았다. ...그런데 보라, 밭에는 사탕무우란 하나도 없었다. 그때 재스퍼 롤프가 “이젠 다 끝난 겁니다” 라고 외친 이유를 알 것 같았다.

“아버지는 마차에서 내려 그가 그리도 아끼고 사랑하던 비옥한

갈색 토양을 한 움큼 쥐어 올리고, 또 떨리는 왼손으로 사탕무우 꼭지를 집어서 마치 자신의 눈을 의심하듯이 그의 노력의 상징을 잠시 바라 보았다.

“겨우 6일 동안 사랑하는 사람의 시체를 4구나 매장하기 위하여 데리고 오고 관을 만들고 무덤을 파고 수의를 입히기까지 했던 사람, 이러한 건딜 수 없는 시련에도 결코 비틀거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던 놀라운 사람인 아버지는 사탕무우 꼭지 더미에 앉아서 어린 아이와 같이 울었다.

“그는 일어나서 그의 크고 붉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는 하늘을 올려다 보면서 말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와드의 장로들을 주셔서 장로들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부탁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누가 보다 큰 축복을 얻었습니까? 고우즈 형제의 밭에 나가 추수한 장로들입니까? 바로 그들이 더 큰 축복을 얻었음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고린도전서 13:13)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의 복지 사업의 전면을 이해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종교개혁의 날]



# 날개에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

23년전 나는 젊은 청년으로서 솔트레이크 시에 있는 상당히 큰 와드의 감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의 막중함과 책임은 나를 위압했습니다. 합당치 못하다는 생각이 나를 위축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영감이나 지시를 주지않고 암흑과 침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독특한 방법으로 그는 내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교훈을 보여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늦게 전화가 울렸습니다. 전화에서 들리는 음성은 이러했습니다. “감독님이십니까? 여기는 병원입니다. 감독님의 와드 회원인 캐드린 맥키씨가 방금 돌아 가셨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기록에는 그녀에게 친척이라곤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망시 연락처 명단에 감독님의 이름이 들어 있군요.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병원에서는 내게 그녀가 살고 있던 가장 초라한 아파트의 열쇠가 들어 있는 봉한 봉투를 주었습니다. 자손이 없는 73세의 이 할머니는 인생의 화려함을 거의 맛보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필요한 것을 충분히 갖추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 들었을 때 이 할머니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조용하고 너무도 말이 적은 사람으로 그녀의 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그녀가 살던 조그만 지하실 아파트를 찾아 갔습니다. 불을 켜고 잠시 둘러 보니 캐드린 맥키 자필로 꼼꼼하게 쓴 편지를 한통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편지는 조그만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감독님.”

“병원에서 다시 돌아가게 될 것 같지 않군요. 옷장 설함을 보면 약간의 보험 증권이 있는데 장례 비용으로 써 주십시오. 가구는 이웃에게 주셔도 좋습니다.

“부엌에 저의 소중한 카나리아가 세마리 있습니다. 황금색 두 마리는 아름답고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새장위에 적어 놓은 친구에게 그 새를 주십시오. 셋째 새는 ‘빌리’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던 새입니다. 빌리는 약간 초라해 보이고 날개에 있는 회색 점때문에 노란빛이 흐려 보이지요. 감독님이 빌리를 데려다가 키워 주시겠습니까? 아주 아름답지는 않지만 노래 소리는 가장 좋답니다.”

그 다음날 나는 캐드린 맥키에 관하여 좀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친구가 되곤 했습니다. 그녀는 길 아래 살고 있는 앓은뱅이를 거의 매일 찾아 가서 기쁘게 해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

녀는 만나는 사람의 생활을 밝게 하였었습니다. 캐드린 맥키는 그녀가 소중히 여기던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 ‘빌리’와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답지도 않았고 부유하지도 않았으며 자손들의 공경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노래는 다른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집을 보다 기꺼이 지고 또한 수월하게 지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녀는 다음의 노래가 말하는 메시지를 따라 생활했습니다.

“외롭고 지친 자를 찾아 기쁨주고  
울면서 탄식하는 자 찾아 위안하여  
언제나 네 선한 일 전하면서  
오늘 세상을 더 밝게 만드리라!”  
...메저렛 주일학교 노래책 1901  
197장

이 세상은 날개에 회색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로 가득차 있습니다. 동정은 너무 귀한 것이므로 이 노래 배우는 자가 극히 드뭅니다. 아마도 명확한 음정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젊은 청년 중에는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이 될 것인지 혹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뭔가 두려워하고 있으나 그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격하고 있으나 누구에게 분격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거부하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누군가가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 등이 굽었거나, 걱정으로 짐이 무거워거나, 회의로 가득차 있어서, 그들의 능력 이하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평범한 우리의 생활을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불운, 미관의 손상, 또는 소위 말하는 불리한 조건등으로 구실을 삼으려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합리화에 희생이 되어 “나는 너무 약하다” 또는 “내가 뭐 별 수 있나”하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은 우리의 미약한 성과를 훨씬 넘는 것입니다. 질서와 낙담은 자제의 희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문제가 다른 사람을 발전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임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고, 오늘의 우리가 어제의 우리를 앞지르고, 할 수 있으리라고 꿈꾸었던 것보다 더 훌륭하게 난관을 견디고, 예전 어느 때보다 강한 힘으로 훌륭하게 과업을 처리하는 것...이것이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는 참다운 방법입니다.

훌륭한 삶을 영위하려면 우리는 용기 있게 난관을 직면하고 낙담을 즐거움으로 화하게 하며 겸손으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고 여러분이 질문하신다면 “자신이 진실로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인식하십시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딸이며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실로 이것에 대한 확신을 지니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새로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 성품이 개인의 외적 인미모에 밀려나고 있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국내와 국제 미인 대회의 소식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쓰아메리카, 미스 월드, 미스 유니버스에게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훌륭한 운동이 이에 못지 않습니다. 동계 스포츠, 세계 올림픽, 국제 토나먼트 경기는 군중을 매혹시켜 열렬한 갈채를 초래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래 전 선지자 사무엘에게 충고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히 들리는 듯 합니다. ...나

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 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삼상 16 : 7)

사기꾼과 위선자는 왕의 왕이시며 주의 주이신 여호와와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허영과 무게없는 생활, 가증스러움, 거짓된 의로움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 23 : 27)

그들은 아름다운 황금빛 카나리아 처럼 겉으로는 아름다우나 진실된 노래가 진정한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대륙에 있었던 하나님의 예언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이는 너희가 금전을 사랑하여 재물을 사랑하며 화려한 의복을 사랑하며 교회의 장식을 사랑하기를, 가난하여 궁하며 병들고 고난받는 자들을 사랑하기 보다는 더하는 때문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그리스도의 이쁨을 받들기를 부끄러워 하느냐? ...

“어찌하여 너희는 생명이 없으므로 너희를 꾸미면서도, 굶주리며 궁핍하며 헐벗고 병들어 고난 당하는 자가 너희 옆을 지나쳐 가거늘 저들을 거들며 보려고도 하지 않느냐?” (골 8 : 37-39)

주님께서서는 가난하고 짓밟히고 억눌리고 고난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낙망한 자에게 희망을, 약한 자에게 힘을, 속박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훌륭한 생을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실은 “나를 따르라”는 거룩한 명령을 받은 모든 사람을 인도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베드로를 인도하였습니다. 바울을 개심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로 무장하고 세상의 구세주를 따를 것을 결심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도움이 있으면 반항하는 소년이 순종하는 소

년으로 될 수 있으며 고집이 센 소녀는 옛날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소녀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7)

구세주께서 신앙이 돈독한 자를 찾으실 때 유대인 회당에서 자신을 의롭다 일컫는 무리들 중에서 택하지 않으시고 가버나움의 어부들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해안가에서 가르치시던 중 그는 호숫가에 매어 있는 두척의 배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 배에 올라 그 주인에게 육지에서 배를 조금 빼어 군중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좀더 우리에게 가르치신 후 주께서 시몬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이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며 얻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눅 5:4-6, 8)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마 4:19) 고기를 낚던 어부 시몬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의심이 많고 믿지 않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훈련을 받지 못하고 성격이 급한 시몬은 쉽게 주님의 길을 발견한 것이 아니며 자유롭게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앙이 적은 자여”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마 16:23)라는 경계를 듣기도 했습니

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5, 16)이라고 대답하였읍니다.

의심이 많던 시몬은 신앙심 깊은 수제자 베드로가 되었읍니다.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는 주님의 온전한 신임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다.

구세주께서는 열성있고 박력있는 선교사를 그의 옹호자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그의 박해자에서 찾으셨읍니다. 다소 사람 사울은 교회를 황폐시키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위협하고 죽이려 하던 사람이었읍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이일이 일어났읍니다. 주님께서서는 사울에게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행 9:15-16)

핍박자 사울은 전도자 바울로 되었읍니다.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처럼 바울도 역시 결점을 지니고 있었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읍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지 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고후 12:7-9)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들의 힘을 다하여 그들의 생활을 진리로 견고히 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불완전한 사람을 택하여 완전케 이르는 길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러했으며 현재에도 날개에 회색 점이 있는 노란 카나리아가 그렇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과 나

를 부르시고 우리가 완수하기를 원하시는 과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약속은 완전한 것입니다. 양심의 갈등은 없읍니다.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좌절될 때 우리는 이 말을 외치기 바랍니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만유의 주재시여, 또 다시 싸우도록 어둠에서 이끄소서.” (양커 고등학교 “응원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과업이 별로 중요치 않고, 필요없으며 눈에 띄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 ‘아버지여 나 오늘 어디서 일하리 이까?’

뜨거운 내 사랑이 흘러 넘치도다.  
손을 들어 작은 곳을 가리키시며  
‘저것을 돌보라’ 말씀하시도다.

급히 대답하며 ‘아니오 그것은 싫소!  
내 아무리 훌륭하게 일하여도  
아무도 보지 아니할 것을.  
그렇게 작은 곳은 나는 싫소’

엄하지 않은 소리로

내게 부드럽게 대답하니:

‘오, 어린 아이야, 네 마음을 구하라;  
사람을 위하여 일하느냐, 나를 위하여 일하느냐?’

‘나사렛은 작은 곳이고

갈릴리도 그러하였거늘.’

—미드 맥파이어—

오늘 내가 간구하는 것은 우리는 실로 갈릴리의 구주를 따르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의 생활을 정리하여 우리의 사랑을 남에게 비추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 계신다는 것을 간증드리며 우리 모두가 그의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되기를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㉞

#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구**세주가 지상에 살아 계시는 동안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십이사도의 도움으로 교회가 발전하고 있었을 때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명확하여졌으니 그것은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분리된 조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요, 어떤 그룹에서 오는 것도 아니며, 개인의 사유단체에서 오는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하여 조직된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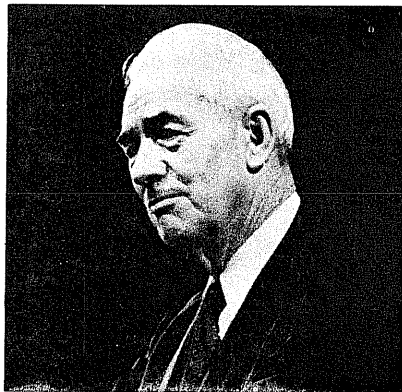
교회는 전도 사업을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교회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인에게 말하였듯이, 그리스도의 지체를 높이기 위하여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의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고 좁은 길을 예비하셨으며, “그 길을 찾는 자는 적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원은 합당하게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비하셨을 뿐 아니라, 교회의 회원으로 하여금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안전책을 세워 주셨습니다. (엡 4:14 참조)



마크 이 피터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사도 바울이 에베소인에게 보낸 편지에 의하면 그 안전책이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교회의 머리에 세우신 예언자와 사도들에게 근본적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서 영감 받은 지도자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대변자요, 그들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영감의 말씀은 주님의 뜻이요, 생각이요, 음성이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주의 권능입니다. (교성 68:4 참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길에는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유혹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주님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체하나 오히려 그 율법을 왜곡하는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주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 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요 7:19)

또 다시 주님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요 5:46)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하였으니, 만일 사람들이 그당시의 가증스런 거짓 교사들 대신 모세를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교리를 통한 구원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에 눈이 어두웠던 그들은 모세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라서 주님의 교회에 속하지 못했으며, 결국 교회를 통하면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모세의 모든 기록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증거한 모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장와로 서기관을 예수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 구세주가 계시던 당시에는 모세의 기록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예수님을 증거하였으나 사람들이 모세를 믿지 않았으므로 그리스도까지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 흥미롭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께서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갈 3:24-25 참조)

주님에 대하여 기록한 선지자는 비단 모세 뿐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덧붙였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는 증거 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행 10:43)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로마에 거하는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 왔는데 그들에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행 28:23)

이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사용되었던 경전에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듯이 구세주에 관하여 여러번 언급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명백히 말해 주고 있음을 잘 알았으면서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히게 하고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유혹한 자들에게는 변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신약 시대의 이와 같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참된 사업과는 동떨어진 그들 나름대로의 단체를 만들고, 그들이 만든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의 전도 사업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단체중 우리의 귀에 익

은 이름이 몇개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모두 배교적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셨으며, 이들의 종교적인 고집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또 다른 단체로는 다음이 속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엄격하게 준봉하는 사두인과, 사해 두루마리를 기록하였다고 여겨지는 옛세비파. 이들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였다.

로마에 대한 종교적 배타 운동 단체인 셀룰 또는 열심당.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파는 헬라파인데 이들은 회람 철학을 사람들에게 주입하려 하였으며 이를 모세 율법에 맞추어 넣으려 했습니다. 이들 역시 성전 제사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배도는 주님 자신의 전도사업 중에서까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이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을 읽어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그의 참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떨어져 나가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때 예수께서는 십이사도를 돌아보시며 “너희도 가려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뉘게로 가오리이까”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영생의 말씀은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신앙심을 가지고 풍성되이 남은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십이사도가 전도 사업을 하던 중에 커다란 배도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결과로 신약에 기록된 거의 모든 서간문이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역사가의 집계를 보면 그리스도 이후 100년 동안에 약 30개의 기독교 분파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번 편지에서 우리는 초기 배도의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편지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분쟁이 있을 수 없다고 간증하였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10)

초기 기독교 시대에 생긴 분파에는 다음과 같은 파가 있습니다.

유다이즈 교리를 신봉하여 모세의 의식에 포함시키려는 유대오-크리스찬.

일레나리안파.

성찬식에 포도주 대신 물을 사용하는 관례를 지키는 에비온파.

여호와와 모세의 율법을 거부하는 노시쓰파.

침례교인으로 알려진 엘케스파.

하늘의 천모신이 존재한다고 가르치는 알콘파.

현재도 이집트에 현존하는 콥파. 시리아 기독교.

또 다른 침례교파인 만나파.

또 다른 파인 단테기파.

약 주후 70년경 예수살렘이 멸망된 후 기독교의 세력을 크게 장악하고 있었던 것은 헬타파였습니다. 헬타파는 그 지역의 문화를 지배하던 희랍의 영향을 고수한다

는 집에서 크게 이점을 보았던 것입니다. 희랍 철학 사상이 강하게 기독교 그림에 들어 와서 복음의 교리와 실천을 변경하였습니다.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대두되었던 아리우스와 아다나시우스는 모두 희랍 철학자였음을 기억하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약이 희랍어로 기록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의 일면은 분파가 일어서는 안된다는 중요성을 확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블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고전 1:12) 고 사람들이 말하나 그리스도는 나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세주는 오직 예수님이요, 그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조나 의식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곧고 좁은 길을 통하여서만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회원은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되고, 교회를 배반하여서도 안되며, 파문을 받을 죄를 범하여서는 안됩니다.

사람이 주님의 교회를 멀리하면 구원으로 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 중에는 그들 자신의 단체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들 중에는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위안을 얻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가 이미 배도되었으며, 지도자들은 더 이상 영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업을 수행하려면 ‘힘세고 강한 자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겸손함은 거의 없이 스스로 그와 같은 위치에 자진 하

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편 중에서 한 절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구절은 어느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구절은 교회를 배반한 자 또는 교회에서 버림받은 자는 마지막 날에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가운데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구원은 다른 어느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 보십시오.

“소 신권을 소유한 자나 회원은 물론 대신권을 지닌 자로서 율법의 책에 그이름을 발견할 수 없는 자 또는 교회를 배반한 사실이 알려진 자 또는 교회에서 버림받은 자는 그날에 가장 높으신 이의 성도가운데서 상속을 받지 못하리라” (교리와 성약 85:11)

그러나 파를 구성하고 있는 자들은 교회에서 파문 당한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범죄하고 주님께서 주신 행법의 법규를 위반한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이 성구를 주의깊게 상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는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이라면, 경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구원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여하한 이유로서 교회에서 버림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왕국을 기쁨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배도한자의 운명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왜 사람들이 배도합니까? 우리는 ‘옛 시온선’을 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양 한복판에 떠 있습니다. 폭풍이 계속 몰아치고 선원들은 갖은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냥 있을 수는 없어. 이 배는 ‘시온선’이 아냐”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는 망망한 대해의 한 가운데인걸.’ ‘상관없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테야.’ 그 사람은 걸음을 벗어 놓고는 뛰어 내립니다. 이 사람이 익사하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옛 시온선’입니다. 우리 모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만일 전능자의 불빛이 이곳에서 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빛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강한 사람은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교회 회원중 어느 누구에게서라도 교회의 제반 사무를 관리하는 대관장단의 권리에 대하여 의심 품는 자가 있으면 배도의 기운이 싹트게 되며, 이것이 자라면 교회의 분리를 가져 오고 나아가서는 파괴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건설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성임된 역원에 대항하려드는 자가 있으면,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고집할 시는 그의 부름이 어떠한 것인가에 마찬가지의 결과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라고 브리감 영 대관장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브리감 영 설교집 [테저렛 출판사, 1943] 82-83, 85 페이지)

주님의 말씀은 간결하여 이해하기 쉽습니다. 교회를 배반한 자나 주님께서 마련하신 합당한 법정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한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 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고대에 모세의 가르침을 더럽힌 여러 종파나, 초기 기독교 시대에 율법을 왜곡시키고 의식을 변경하여 영원한 성약을 깨뜨린 수 많은 종파에서 구원을 발견할 수 없듯이 오늘날의 여러 분파에서도 구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교리와 성약 85편에서 좀 더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념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는 모두 그날에 상속을 받지 못하고 산산이 쪼개질 것이요, 저들의 분깃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운데 지정되리니 그 곳에서 울부짖으며 이를 갈리라”(교성 85:9)

비록 교회에서 파문당한다 하더라도 그가 받은 신권과 신전 축복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봉인할 수 있는 능력은 또한 봉인을 풀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진실된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마 16:19, 교성 132:46) 파문은 교회에서 입은 축복, 특권, 권리를 앗아 갑니다.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입을 수 있습니까? 오직 교회를 통하여, 또한 교회의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강렬하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다스릴 면류관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교성 76:

79 참조)

그러나 회개는 참으로 훌륭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때부터 그의 계명을 지키려는 용서를 상으로 받을 것이요 새로운 인간으로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게 이보다 더 훌륭한 약속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죄인을 구하려 오셨습니다. 의사를 필요로 하는 자는 병든 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다른 사람 뿐 아니라 병든 자들이 그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성결케 되어 하나님의 왕국으로 구원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 하겠느냐?”(에스겔 18:23)

주님은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쉬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28-30)

그러나 우리는 그의 멍에가 그의 교회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그의 짐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대로 쓸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간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드립니다. 아멘. ㉞

# “의로운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니라”

(니파이 일서 22 : 17)

우리는 우리가 비록 고통을 받을 때라도 의로운 사람은 보호하여 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으로 큰 위안을 받습니다. 예언자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의 민족과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안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되리라.” (니일 22 : 28) 요즈음과 같은 소란, 사악, 전쟁, 파괴로 가득찬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위안을 가져다 주며 참으로 우리를 확신시켜 주는 성구들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기사를 쓰면서 의로운 사람에게 오는 화평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자는 데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친구, 친척, 부모, 부인, 남편, 사랑하는 동포가 회개를 하여 주님이 의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보호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하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니파이는 이런 말로 우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을 능력을 잃을 날이 속히 이르리라 하셨으니, 교만하고 완악한 모든 백성들이 불살라질 날이 반드시 이르리라.” (니일 22 : 15)

니파이의 말씀은 무섭고도 의미심장한 경고라 하자 않을 수 없습니다. 우

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어서 일깨우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국 성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맡은 바 선교사로서의 책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한국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길은 한국 성도가 이웃과 가족에게 강한 간증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떤 회원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의 아들이 처음 침례를 받던 8년 전에 복음에 관해서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복음의 메시지를 그토록 오랫동안 혼자만 간직해 왔던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이웃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 회원이 가정의 밤에 그들을 초대해서 동석한 선교사에게 소개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회원이 비회원 가족을 찾아서 우정을 증진하는 경우에 선교사들은 세 가정 중에서 두 가정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교회를 성공시키는 훌륭한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한국 땅에 원하시는 약속과 화평을 가져

오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가족이 들어올 때, 비로서 교회는 강해 질 수 있습니다. 교회 내의 회원 가족이 가르쳐 침례주기가 힘들게 됩니다.

교회의 대관장단 제일 보좌이신 엔 엘돈 태너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것은 회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은 가족을 통해서 옵니다.

저는 교회 회원 여러분에게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완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을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이 복음을 나누는 일보다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교회 발전은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모두가 참다운 의미에서 선교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화평과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할 것입니다. **☞**

엘 에드워드 브라운



# 내외 소식

## 연차 대회에 참석한 감독의 가정을 방문하여 격려하시는 스테이크 부장

지난 10월 5일부터 약 2주에 걸쳐 서울 스테이크의 감독들은 처음으로 연차 대회에 참석하였다. 스테이크 부장단에서는 여행중의 감독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점을 상의하고 기도하여 걱정을 덜어 주었다.



## 목포 지부 예술의 밤 성황

지난 6월 7일 목포 지부에서는 상호 향상회 주최로 전 목포 시민을 상대로한 "예술의 밤"을 가졌다. 시 낭독, 음악, 무용, 선교사 게임 및 연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목포 지부 상호 향상회의 실력을 과시했다.

특히 「새마음 운동」이란 제목의 연극은 관객들에게 커다란 교훈을 남겨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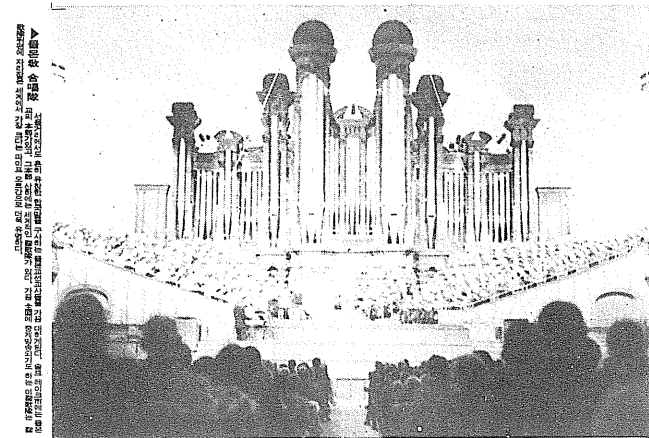


성도의벗 1973년 11월호

## 태버나클 합창단, 조선일보에 소개

지난 10월 14일자 조선일보 5면에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자랑중의 하나인 태버나클 합창단이 칼라로 크게 소개되었다.

조선일보의 미국 횡단 특별 취재반이 취재한 이 기사는 짙막한 기사와 함께 19cm×15.5cm의 원색 사진으로 실렸다.



## 전주 지부 9월 음악회 갖다.

전주 지부에서는 지난 9월 15일 상호 상향회 주최 제2회 9월 음악회를 가졌다.

매년 가을을 맞아 갖는 이 모임은 제1부는 음악 감상과 선교사들의 무언극, 제2부는 음악 발표 순서와 다같이 노래하기로 진행되었는데 특히 대전 지부와 군산 지부에서 많은 회원이 참석하여 상호 상향회 역원들을 흐뭇하게 했다.

이날 모임에는 120여명의 성도가 참석하였으며 초대 손님으로 참석한 박 주인 지방부장은 상향회를 통하여 회원이 발전하는 것을 볼 때 기쁘기 한이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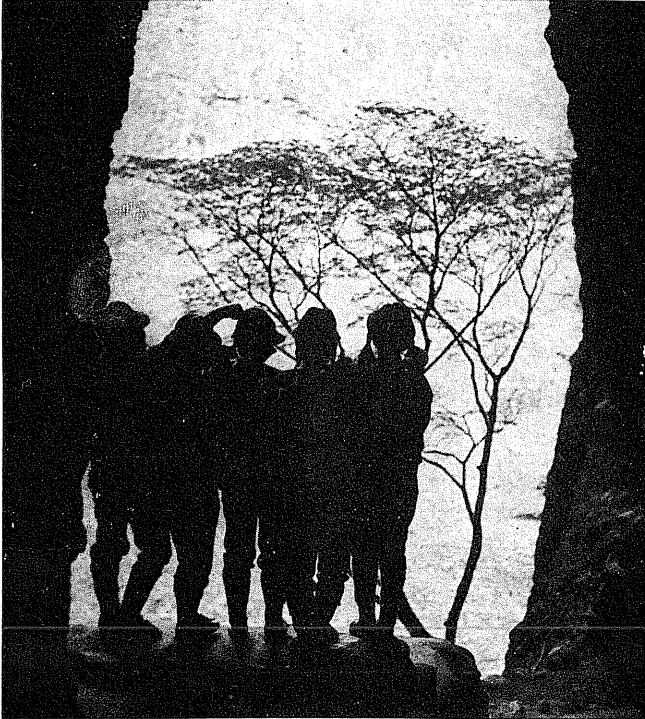


## 군산 지부 사진 컨테스트 갖다.

지난 8월 16일 군산 지부에서는 상향회 주최로 회원들의 "사진 컨테스트"가 있었다.

회원 각자가 지금까지 찍고 모은 400여점을 출품하여 가졌던 이번 컨테스트에서 최우수작에는 함 경덕 자매의 "동굴"이, 우수작에는 박 인옥 자매의 "아빠왔어? 기다려 문 열어 줄게" 가작에는 함 경숙 자매의 "코스모스 질때까지"가 입선되었다.

최우수작인 함 경덕 자매의 사진을 함께 싣는다.



## 송 명화 형제 발표회 갖다

목포 지부에서 상호 향상회 회장으로 일해 온 송 명화 형제가 지난 8월 15일 오후 7시 30분 목포 신혼 예식장에서 출신 지역인 목포를 떠나면서 그의 재능을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제 2와드 회원으로 현재 서라벌 예대 연극 영화학과에 재학중이다.



## 전주 지부 소속 운암 주일학교 창립

지난 9월 2일, 전주에서 약 50키로미터 떨어진 삼진강변에 위치한 운암 재건 중학교에서는 오 양식 전주 지부장을 모시고 전주 지부 소속 운암 주일학교의 첫 모임을 가졌다.

이곳의 몇 회원과 학생들은 오랫동안 예배볼 수 있는 기회를 고대해 왔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배를 타고 오고 가야하는 불편에도 불구하고 약 50여명이 참석하여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형제 자매애를 나눌 수 있었다.

## 여수 지부, 가족 단위 모임 갖다.

지난 10월 3일 여수 지부의 회원 37명은 회원들의 친목과 간증을 발전시키고 가족의 신앙을 강화시키기 위해 구봉산에서 가족 단위 야유회 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상호 향상회 역원들이 준비한 특기 자랑, 게임, 보조 조직 대항 노래 자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겼다.



## 목포 지부 임해 체육대회 갖다

지난 8월 15일 목포 지부에서는 박 장석 지부장을 비롯한 50여명의 성도들이 목포에서 쾌속정으로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 금호도 해수욕장에서 임해 체육대회를 가졌다.

이들 회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속에서 무더운 여름날의 하루를 보냈다고 상기된 얼굴로 기뻐했다.



## 스��이크 감독, 반연차 대회 참석

서울 스테이크 산하 7개 와드의 감독과 (8와드의 이강우 감독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 김종균 축복사, 김창선 스테이크 부장단 제1보좌는 태버나클에서 개최된 제143차 반연차 대회에 참석코자 지난 10월 5일 서울을 출발 10월 6일

부터 시작된 대회에 참석하였다.

본부의 초청으로 대회에 참석하게된 이들 9명의 형제는 처음 참석한 대회의 느낌과 서울 스테이크의 발전상을 처치 뉴스를 통하여 세계의 많은 성도에게 알릴 기회를 갖기도 했다. 처치 뉴스에 실린 기사를 함께 읽는다.

# Conference Impresses Nine Korean Members

Impressed and fortified with the gospel were the terms used by nine Korean church leaders to describe their first visit to a general conference.

The nine men listened to the conference sessions with the aid of translation earphones in their own language. It was the first time the Korean language had been translated for a general conference.

Pres. Kim, Chan Suen (the family name is used first in Korea) first counselor in the Seoul Stake led the group, which included the stake patriarch, Kim, Chong Kyun and seven bishops, Kim, Cha Bong; Cho, Kyu Young, Kim, Chong Youl; Hong, Moo Kwang; Cho, Byung Ha; Koo, Jhung Slaick and Yong, Jea Ho. Bishop Lee, Kong Woo was not able to leave Korea because he was only 29 years of age and passports are not issued under age 30.

The Seoul Stake was organized last March '8 when President Spencer W. Kimball of the Council of the Twelve visited Korea.

Each of the men chose as leaders in the stake were outstanding community leaders. Pres. Kim, for example, is a medical doctor and psychologist. He is in charge of the department of psychology at the large Hanill Hospital in Seoul.

"Activity has increased since the stake was organized. Our members are more involved and new leaders are being developed. Our high council is completely organized and is very strong. Our seventies are aiding in the missionary work. Attendance at stake conference

was about 40 percent last time," Pres Kim said.

The Korean visitors reported that the economy in Korea was stable and the U.S. dollar had only decreased from 400 marks to 397 marks.

The group attended the Provo Temple, where the six who had not received their endowments were blessed with that opportunity.

Their schedule was busy with the various departments of the church as they took advantage of the learning opportunity.

"It has been a spiritual uplift to attend the conference. I felt a closeness to the General Authorities and members of the church. I have a testimony that President Harold B. Lee is a prophet. I met him two years ago and I knew it then, but it was special to see and hear him in the Tabernacle.

music I felt right at home and I realized that we were all of one church. It was wonderful to be with the members. We were no longer strangers," Pres. Kim said.

Each of the men made careful and extensive notes so they can take the message back to their stake and wards.

They all agreed that the visit was interesting and the customs different. They tried new food and thought it was strange to have cake for breakfast. They admitted that they missed kimchi, the pickled cabbage, flavored with spice and garlic, which is a staple food in Korea.



Nine Korean members discuss their trip to conference.

## 신학 연구원 부산 지역 학생들 야유회 갖다

지난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신학 연구원 부산 지역 학생들은 남쪽 동해안에 위치한 일광 유원지에서 도길회 교수를 모시고 30여명의 신학 연구원생들이 모인 가운데 야유회를 가졌다.

이들 학생들은 교실에서 나눈 형제애를 놀이와 게임을 통해 함께 나누었다.

이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들은 훌륭한 모임이었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